metro

메트로 2013년 12월 18일 수요일

Sports p/22

연봉 4억원 깎인 김병현

북한 '새 권력지도' 공개

NEWS p/02

34년 전 '아버지의 약속' 대신 지킨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 [illegible] LG그룹 회장 등과 테이프 커팅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전경련 회관은 박 대통령의 선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9년 회관 신축을 기념해 친필 휘호를 선물하고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20여 일 앞서 유명을 달리하면서 휘호를 새긴 기념석만 1층 로비 한편으로 옮겨졌다 <관련기사 9면> /연합뉴스

통신비만 올린 '무제한 요금제'

공짜통화 욕심에 무작정 가입하면 요금 '더블' — 음성·데이터 사용량 따져본 후 가입해야

A씨는 얼마 전까지 3세대(3G) 단말기를 이용하며 1만2000원 기본요금제에 가입해 이용하고 있었다. 월평균 요금도 2만 원 후반대에 불과했다. 하지만 최근 이동통신사에서 3G 전용 음성 무제한 통화 요금이 출시되자 A씨는 현지 공짜 전화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3만원대 요금제로 변경했다. 하지만 무료 통화도 3만원대 요금제로는 맨바 무제한 통화만 가능했다. 결국 통신비만 1만원 이상 올랐을 뿐이었다.

B씨는 휴대전화를 새로 바꾸려고 하던 중 한 이동사 판매점으로부터 안내 전화를 받았다. 월 6만9000원의 망내외 음성 무제한 요금제를 3개월간 유지하면 신형 LTE 단말기를 월 1만원이 채 되지 않는 가격에 제공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B씨는 통신비가 월 4만원 내외에 불과했으나 해당 단말기를 구입해 이용하기 시작했다.

결국 B씨의 통신비는 단말기 요금까지 8만원 가까운 요금이 지출되며 기존 대비 두 배가량의 요금이 들었다. 하지만 B씨는 3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요금제 변경을 하지 않았다. 요금제 변경에 대한 안내가 없는 데다 요금도 자동이체로 빠져나가 무심했기 때문. 결국 그는 6개월이 지난 후에야 안내센터에 전화해 3만원대 요금제로 변경할 수 있었다.

이처럼 최근 이통 3사가 가계 통신비 인하를 목적으로 무제한 요금제를 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계 통신비는 올라가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자신의 휴대전화 이용 패턴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무제한 요금제가 쌀 것이라는 인식 때문.

하지만 무제한 요금제도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음성통화를 많이 이용하는 경우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지만 데이터를 많이 이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요금제를 이용하되 부가서비스로 데이터요금에 가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데이터 이용량이 많은 경우에는 SK텔레콤의 올인원 및 LTE 요금제가 유리하다. SK텔레콤은 1일부터 3만~5만원대 요금제를 대상으로 데이터량을 최대 6배 늘리며 이용자들로부터 각광받고 있다. SK텔레콤은 이를 통해 음성통화량이 많은 이용자는 T끼리 요금제를, 데이터 이용량이 많은 이용자는 올인원·LTE 요금제를 선택하면 된다고 밝혔다.

KT의 경우 두 배 프로모션이 지난 10월 31일 종료되며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월 1만원으로 LTE 데이터를 하루 2GB씩 한 달에 62GB를 제공하는 '100% LTE 데이터팩'으로 데이터 이용량이 많은 이용자를 배려하고 있다.

만일 음성통화와 데이터 이용량이 적은 이들이라면 알뜰폰(MVNO)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최근 우체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알뜰폰의 경우 월 기본료 1000원 요금제도 출시되며 인기를 얻고 있다. 1000원의 기본료에 자신의 통화량만 조절하면 효과적으로 가계 통신비를 낮출 수 있다.

이처럼 결국 가계 통신비를 낮추기 위해서는 자신의 통화 패턴을 파악하는 개개인의 작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업계 관계자는 "이통사 요금제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자신의 통화 패턴 및 데이터 사용량 등을 파악해 효율적인 요금제를 선택하는 게 좋다"면서 "각 이통사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내게 맞는 요금제' 서비스를 이용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illegible] [illegible]@metroseoul.co.kr

단순 위치추적·전공구조 119에 전화하지 마세요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이달부터 단순 가출이나 가족 간 다툼 등에 위치추적 서비스를 제한한다.

17일 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동전화 위치추적 신고는 2010년 2만9762건에서 지난해 4만8799건으로 64% 늘었다.

지난해 매일 133건의 이동전화 위치추적 신고가 접수돼 재난이나 자살 시도처럼 긴급하지 않은 곳에 소방 인력이 낭비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2010년부터 올해 5월까지 5회 이상 위치추적을 요청한 사람은 1064명에 이르렀다.

본부는 또 멧돼지·뱀·벌처럼 위험한 동물은 포획 대상이지만 유기견, 고양이 구조 업무는 구청에 이관할 방침이다.

동물 포획과 고드름 제거 같은 생활안전 분야 출동 건수는 2010년 2만3799건에서 지난해 3만1971건으로 34% 늘었다. 지난해엔 동물 처리가 1만6910건(52.9%)으로 가장 많았고 실내 갇힘(41.4%), 가스 누출(1.8%)이 뒤를 이었다.

권순경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허위나 거짓으로 위치추적 서비스를 이용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고 말했다. /[illegible] yab@

'오로라 공주'가 남긴 것

기자 수첩
양성운
<연예스포츠부 기자>

올 한 해 가장 '핫'한 드라마를 꼽자면 단연 '오로라 공주'다.

우여곡절 끝에 150회작으로 확정된 '오로라 공주'는 종영까지 3회만 남겨두고 있다. '오로라 공주'는 시청률은 높았지만 시청자들 사이에서 연장 반대 및 임성한 작가 퇴출 서명운동까지 일며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주연배우들조차 종잡을 수 없는 스토리에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유체이탈을 비롯해 등장인물의 급사, 갑작스러운 암 환자 등 판타지로도 분류할 수 없는 설정이 빈번히 등장했다. 일각에서는 '엽기적인 데스노트'가 또다시 등장했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다.

주연배우들과 시청자들의 빈발이 거세지자 임 작가는 "대본을 쓰는 입장에서 객관성을 유지하려 노력했고 연출부 의견도 듣고 심의실 의견도 수용하고 특히 예민할 수 있는 사안에선 기획자의 조언을 들어가며 쉬대한 단점을 줄이려 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놓치는 부분이 있었다"는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 변명은 그간의 드라마 전개를 떠올려보면 쉬이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다.

물론 평소 경험하지 못한 상황을 드라마로 간접 경험할 수 있어 신선할 수 있다. 하지만 스토리를 보고 있으면 음식에 사용되는 MSG가 연상된다. 조금 넣으면 감칠맛을 살려주지만 과하면 오히려 독이 되기 때문이다. MBC와 임 작가는 시청자와 배우들의 볼멘소리의 의미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한 번쯤 고민해볼 때다.

<1월말~3월초>

"북 내년 '1말3초'가 위기"

김관진 국방 "내부 불안 돌리려 도발 가능성"…4차 핵실험 실시할 수도

국방부가 내년 초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17일 오전 주요 지휘관과 가진 화상회의를 통해 "북한이 내년 1월 하순에서 3월 초순 사이에 도발할 가능성이 크다"며 북한 군부의 과도한 충성 경쟁과 '공포정치'에 따른 불안감 가중, 장성택 주변 인물 등에 대한 지속적인 숙청 등에서 비롯되는 내부 불안을 외부로 표출할 가능성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군은 장성택 숙청 전후 북한의 권력 구도 재편 작업이 권력 엘리트를 강압적으로 결집하는 방향으로 진행 중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지방 시찰 때 부부장급 간부를 주로 대동하는 방식으로 이들의 상급 간부들을 통제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런 통치 방식은 단기간에 유일영도 체계를 구축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거시적으로 보면 불만 세력을 키워 내부 균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군은 평가하고 있다.

도발 시기를 1월 하순에서 3월 초순 정도로 예상한 것은 3월 한미 키리졸브 훈련 등을 앞둔 북한의 반발 가능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보위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도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징후가 보인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당장 핵실험이나 장거리 로켓 발사 징후는 없다"고 설명했지만 조 의원이 주장한 것은 예상해볼 수 있는 북한의 도발 유형 중 하나다. /이도훈기자 ...@metroseoul.co.kr

북한 새 '권력배치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2주기 중앙추모대회가 17일 평양 금수산태양궁전에서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박봉주 내각총리,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 리영길 군 총참모장. /조선중앙TV 화면촬영

김정은 바로 옆자리 차지한 최룡해

김정일 2주기 추모대회 고모 김경희는 안 보여

17일 열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2주기 추모대회에 관심을 모은 김경희 당 비서와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부인 리설주는 참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리설주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하며 장성택 처형 후 첫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북한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평양체육관에서 중앙추모대회를 개최했다. 조선중앙TV 등 북한 매체들은 추모대회를 실황 중계했다.

주석단에는 김 제1위원장의 왼편으로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 리영길 군 총참모장, 장정남 인민무력부장 등이 앉았고, 오른편으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박봉주 내각 총리, 항일 빨치산 출신의 황순희 조선혁명박물관장 등이 자리했다.

특히 최 총정치국장은 지난해 추모대회와는 달리 김 제1위원장 바로 옆에 앉아 높아진 위상을 과시했다. 그는 전날 열린 김정은 충성맹세대회에서도 단독으로 연설을 맡아 눈길을 끌었다.

장성택 처형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조연준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과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도 주석단에 모습을 보였다.

주석단에는 장성택 라인으로 알려진 로두철 내각 부총리, 김영건 당 비서, 문경덕 평양시 당 책임비서 등도 나타나 건재함을 과시했다. /김태훈기자

리설주 두 달 만에 등장 김정은과 부인 리설주가 17일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에서 당 간부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조선중앙TV 화면촬영

'정치글' 사이버심리전 요원 20명 불구속 기소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이버심리전 요원 중 20여 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을 제시하고, 국군사이버사령부 '정치글' 작성 의혹 사건을 군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군의 한 소식통은 "조사본부가 이르면 내일 사이버사령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모 사이버심리전단장을 포함해 20여 명의 사이버심리전 요원에 대한 불구속 기소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군 검찰은 추가 수사 과정을 거쳐 불구속 기소 의견이 제시된 사이버심리전 요원들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심리전단 소속 인원은 100여 명이고 이 중 70~80여 명이 북한의 선전 선동에 대응해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사이버심리전을 수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현정기자 ...

여야 5선이상 의원들 오찬회동 정몽준, 남경필, 정의화, 박병석, 서청원, 문희상, 이인제, 이석현, 김무성(왼쪽부터) 등 여야 5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17일 경색된 정국을 해소하기 위해 오찬회동을 했다. /연합뉴스

뉴스 & 뉴스

안철수의 새정추, 대전서 첫 '신당 세일즈'

● 무소속 안철수(사진) 의원의 신당 창당 준비 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이하 새정추)가 17일 대전을 찾아 본격적인 '신당 알리기'에 들어갔다.

새정추는 이날 오전 대전에서 첫 전국 순회 지역 설명회를 갖고 신당의 정치적 지향과 창당 방향 등을 설명했다.

안 의원은 "정치 일정에 대해 최선을 다해 책임감 있게 참여하겠다"며 내년 지방선거 전 창당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황식 전 총리 "생가복원 바람직하지 않다"

●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전남 장성군이 자신의 생가 복원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장성군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장성군은 "김 전 총리가 김양수 군수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전했다. 이에 군은 군의회와 상의해 복원사업은 재검토할 방침이다.

'주거제한·외출금지' 형집행정지 강화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 윤길자(68·여)씨처럼 형집행정지 제도를 악용하기가 앞으로는 어려워진다.

17일 법무부는 형집행정지에 따른 임시 출소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유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은 형집행정지 허가 시 ▲의료기관 등으로 주거를 제한하거나 ▲의료기관에서의 외출·외박을 금지하는 조건을 추가할 수 있다. 의료기관 이용 시에도 치료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는 시설 및 용역을 제공받지 않도록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2004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씨는 박모(구속)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교수에게 '맞춤형 진단서'를 받아 2007년 7월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뒤 재수감될 때까지 병원을 드나들며 생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조현정기자 ...

남산 가는길 '달려라 하니' 서울 명동역에서 남산까지 가는 길목이 '만화의 거리'로 꾸며진다. 서울 중구 퇴계로20길 일대 한 건물 앞에 '달려라 하니' 의 조형물이 설치돼 있다. /뉴시스

전동차는 달리고 싶다 전국철도노동조합 총파업 9일째인 17일 오후 서울 구로차량기지에 전동열차들이 정차해 있다. 서울지하철 1~4호선을 운행하고 있는 서울지하철노조는 18일부터 철도노조와 공동 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시민들의 출근길 교통대란이 예상된다. /뉴시스

철도 이어 서울지하철도!

오늘부터 파업 '출퇴근 대란' 우려 - 철도 파업은 장기화 가능성 커져

17일 철도노조 파업이 역대 최장 기간인 9일째로 접어들며 화물·여객 수송에 비상이 걸렸지만, 정부와 철도노조는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점점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경찰은 이날 서울 용산역 인근 철도노조 본부와 서울 사무소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노조 사무실에 수사관 30여 명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내부 보고서 등을 확보했다. 노조 사무실 인근에는 대형 매트리스를 깔고 경찰 240여 명이 투입돼 현장을 통제했다. 또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명환 위원장 등 철도노조 지도부 10명에 대한 체포 작업도 진행됐다.

이와 관련, 철도노조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 맞춰 국회 앞에서 '수서발 KTX 주식회사 철회 및 면허발급 중단'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인 뒤 서울역에서 민영화 반대 야간 촛불 문화제를 열었다.

이런 가운데 서울메트로 제1노조인 서울지하철노조는 18일부터 철도노조와 공동 파업 돌입을 예고해 지하철 감축 운행에 따른 출퇴근길 혼잡이 가중될 전망이다.

코레일은 장기 파업에 따른 대체 인력 피로도 누적과 사고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KTX 열차 운행을 평시 대비 88%로 감축, 운행에 들어갔다.

KTX 운행은 이날부터 주중 200회에서 176회(경부선 16회, 경전·호남 각각 4회)로, 주말은 232회에서 208회로 각각 줄어든다.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도 56~61.8%로, 전동열차는 93.1%, ITX청춘은 18.2%, 화물열자는 평소 대비 39.4%인 116회를 운행한다. 열차 전체 운행률은 전날보다 1.9% 포인트 감소했다.

코레일은 파업 장기화에 따른 열차 안전 확보를 위해 추후 열차 운행을 더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민준기자 mkim@metroseoul.co.kr

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될까

오늘 대법원 결정 주목

초과근로수당 등의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8일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어서 재계와 노동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통상임금의 범위를 두고 논란이 되는 부분은 대부분 고정성이다.

18일 선고를 앞둔 사건에서는 상여금 지급 조건이 신규 입사자, 2개월 이상 휴직자, 복직자에게 근무 일수를 구간별로 나누어 지급 비율을 달리 정하고 있다.

근무 태도(무단결근 횟수)에 따라 상여금을 일정 비율 감액하는 규정도 있다.

통상임금의 범위를 근속 기간, 근무 일수에 따라 달리 지급하는 상여금까지 포함한다면 고정성의 개념은 더 확대된다.

대법원이 이런 결정을 내리든 현재 임금 체계는 손질이 불가피하다.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폭넓게 인정한다면 통상임금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재계는 통상임금이 확대되면 38조5509억원에 이르는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통상임금 확대를 주장하고 있고, 국회에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한 법안들이 계류 중이다. /유선준기자

마스크 쓴 채 첫 재판 받은 이재현

누구시더라?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첫 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 회장이 17일 오전 서초동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마스크를 쓴 채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는 이날 오전 10시 서증조사(문서증거조사)를 시작으로 이 회장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을 열었다.

신장이식수술을 받아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못했던 이 회장은 이날 지팡이를 짚고 출석했으며 마스크를 쓴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이 회장은 CJ그룹 직원들과 공모해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관리해오면서 546억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963억원의 국내외 법인 자산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조현정기자 /뉴시스

'비자금 의혹' 국민은행 도쿄지점 직원 숨진 채 발견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은행 도쿄지점의 현지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 도쿄지점 현지 채용 한국인 직원 1명이 16일 오후 사고에서 목을 맨 숨진 채로 발견돼 현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숨진 직원은 도쿄지점에서 여신 업무를 담당해 왔다.

일본 금융권 관계자는 "국민은행 도쿄지점의 한국인 직원이 자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비자금 사건과 관련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정확한 사실 관계가 파악이 안 된 상태"라고 전했다. /김민지기자

점점 늙어가는 부산

65세 이상 고령 인구 5년사이 21% 늘어나

최근 5년간 부산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2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지방통계청이 17일 발표한 최근 5년간 부산의 인구변화 자료에 따르면 2012년 부산의 주민등록인구는 353만8000명으로 2008년의 356만5000명에 비해 2만7000여 명(-0.8%) 감소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4세 미만 인구는 2008년 51만7000천명에서 2012년 44만3000명으로 5년간 14.3% 줄어든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2008년 36만4000명에서 지난해 44만2000명으로 5년간 21.4%(7만8000여 명)나 증가했다.

이에 따라 부산의 고령 인구 비율은 2012년 12.5%로 2008년의 10.2%보다 2.3%포인트 증가했다.

부산의 출생아 수는 2012년 2만8700명으로 2008년의 2만6700명보다 2000명(7.5%) 늘었다.

따라서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합계 출산율은 2012년 1.14명으로 2008년의 0.98명에 비해 0.16명 증가했다.

부산의 혼인 건수는 2012년 2만400건으로 2008년의 2만100건보다 300건(1.1%) 증가했다.

반면 이혼 건수는 2012년 7500건으로 2008년의 7900건보다 400건(-5.1%) 감소했다.

5년간 부산에서 인구 순이동 중 전입이 가장 많은 지역은 기장군으로 3만2000명이 새로 들어왔다. 전출이 가장 많은 지역은 5년간 2만3000명이 빠져나간 사상구가 꼽혔다.

인구 순이동 기준으로 부산 인구는 사상구, 사하구, 부산진구 등 중심지에서 기장군, 강서구 등 외곽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였다. /연합뉴스

명품 패딩 20% 싸게 판다

메가마트 내일부터 캐나다구스 할인전…부산·경남 대형마트 최초 실시

부산·경남 대형마트 최초로 메가마트에서 '캐나다구스' 패딩(사진)을 판매하는 대형 행사가 열려 눈길이 쏠린다.

메가마트는 오는 19~21일까지 3일간 부산남천점에서 병행수입한 인기 프리미엄 패딩 캐나다구스를 정상가 대비 20% 할인 판매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총 400여 물량이 준비되며 1인당 2점 한정 판매할 예정이다.

할인 행사에 준비된 상품은 캐나다구스의 최고 인기 상품인 익스페디션을 비롯해 샌셋턴, 시타델, 칠리왁 등의 17가지 스타일을 선보인다.

캐나다구스 패딩은 병행수입을 통해 기존 국내 판매 가격(백화점 기준) 대비 20% 가격을 낮춰 판매하고 모든 상품엔 정품 홀로그램이 부착돼 있다.

캐나다구스는 뛰어난 보온성은 기본이고 200여 개에 이르는 수작업 공정과 100% 캐나다에서 제조되는 등 높은 품질을 자랑한다. 또 유명 연예인이 착용하면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해 100만원이 훌쩍 넘는 가격에도 불구하고 올겨울 패션 트렌드를 주도하며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제품이다.

특히 일부 아웃도어가 대중화되면서 차별화로 주목받고 싶어하는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마니아층이 형성됐다는 게 업계 측의 설명이다.

메가마트 관계자는 "프리미엄 패딩은 가격 부담이 높아서 쉽게 구매하기는 어렵지만 제품 신뢰도와 실용적 측면인 탁월한 방한 기능성 때문에 큰 인기를 얻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다양화된 패션 트렌드를 반영해 부산·경남지역 대형마트 최초로 이번 특별 할인 행사를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하균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산복도로 르네상스' 세계 최고 공인 도전

도시재생 사업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꼽히는 '부산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세계적인 도시재생 모델로 인정받기 위한 도전에 나선다.

부산시는 18일 유엔(UN) 공공행정상의 '공공행정 전달방식 개선 분야' 국제 공인을 온라인을 통해 유엔 경제사회처 공공행정원 전국에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유엔 국제 공인 추진은 유엔이라는 국제 기구를 통해 부산의 성공적 정책 모델을 전 세계 도시로 전파하기 위한 것이다.

유엔 공공행정상은 공공행정의 역할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국제 공인으로 공공 분야 세계 최고 권위의 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2003년 제정된 이후 해마다 국내외 많은 공공행정 수행 기관들이 수상을 다투고 있다.

부산시는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유엔 실무팀의 산복도로 르네상스 공공·민간 파트너십, 시민 피드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내년 6월 23일 유엔 공공행정의 날 이전에 수상 여부를 확정하게 된다고 전했다.

남해에 나타난 검은머리갈매기 세계적으로 1만여 마리밖에 남지 않은 국제 멸종 위기종인 검은머리갈매기가 17일 오전 경남 남해군 설천면 인근 갯벌을 찾았다. 국내에서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으로 지정돼 있는 검은머리갈매기는 번식 때 머리가 검게 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검은 부리와 붉은 다리를 가진 것이 특징이다. /뉴시스

내년 기간제교사 인력풀 확대

부산시교육청이 내년 기간제 교사 인력풀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시행된 기간제 교사 인력풀을 내년에는 중등 10개 과목(국어, 영어, 수학, 물리, 생물, 지구과학, 화학, 역사, 일반사회, 지리)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기간제 교사 인력풀은 공개 시험을 치러 시험 합격자로 구성되며 시험은 내년 1월 26일 실시된다.

원서 접수는 내년 1월 2~8일 시교육청을 방문(대리 접수 가능)해서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기간제 교사 인력풀 확대를 통해 우수한 교사 인력 확보와 학교 행정업무 경감으로 학교 교육력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과정으로 인사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한미 동맹·정전 60돌 기념 미술대전 30일까지 열린다

한미동맹 60주년과 정전 60주년 기념 부산미술대전이 17일부터 30일까지 부산문화회관(17~20일)과 을숙도문화회관(21~30일)에서 열린다. 전시회에서는 ▲인천상륙작전, 장진호전투, 영도다리, 국제시장 등 부산의 모습을 기록한 32점의 전쟁기록화 ▲6·25 전쟁에서 싸웠던 장병들, 유엔군 장교 등 인물화 63점 ▲이승만 대통령, 더글러스 맥아더 사령관, 백선엽 장군의 흉상 작품 3점 ▲평화와 번영을 기원하는 순수 미술 작품 70여 점 등이 전시된다.

경남정보대 산업부장관 표창

경남정보대학교는 교육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 주관한 '2013년 산학협력 활성화 및 지역산업 진흥 유공자 포상' 에서 산학협력 활성화 부문 우수 대학으로 선정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대학 LINC사업단은 산학협력 코디네이터를 통해 산업체 수요 조사, 취업 중심형 인력 양성을 위한 현장 실습, 기술 지도 등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과 고용 증대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또 캡스톤 디자인을 통해 학생들의 아이디어 발굴에서 실질적인 제품 개발로 연계시켜 기업의 만족도를 키워온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교육부가 공동 주최한 이번 시상은 산학협력 활성화 및 지역산업 진흥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역 대학과 유관 기관 및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LINC 사업 또는 산학협력을 수행하는 65개 대학과 대학별 가족회사 20개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및 현장 면접 등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본선 경합 대학을 선정한 뒤 전문가평가위원회를 거쳐 10개 대학을 최종 선정했다. 시상식은 지난 16일 오전 더케이서울호텔에서 열렸다.

/정하균기자

선한모임 연탄 5000장 배달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봉사 모임인 선한모임(회장 김재완)은 18일 오후 2시부터 남구 문현1동 주택가를 찾아 후원금으로 구입한 연탄 5000장을 직접 배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로 이루어진 자발적 봉사 모임으로 9년째 매달 월급에서 십시일반으로 후원금을 모아 지금까지 약 5600만원을 소년·소녀 가장 및 결식 아동, 지역아동센터, 유니세프 등에 기부해오고 있다.

주현성씨 초청 인문학 특강

해운대구는 23일 오후 3시 해운대구 문화복합센터 다목적강당에서 '지금 시작하는 인문학' 저자 주현성씨 초청 인문학 특강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강연에서 저자는 '인문학이란 무엇이며 어떤 즐거움을 주는가?'를 주제로 강의할 예정이다. 문의 (051)749-4066

<덕포동>

밝아진 골목 범죄걱정 '뚝'

120곳 담벼락엔 디자인 벽화 그려져…범죄예방 환경 조성사업 완료

2010년 '김길태 사건'이 발생한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 범죄를 예방하는 환경 조성사업이 완료됐다.

이 사업은 '안전한 부산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김희관)과 범죄예방위원 부산지역협의회(회장 심정택), 동아대학교(총장 권오창), 사상구(구청장 송숙희) 등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은 김길태 사건이 발생한 사상구 덕포동에서 범죄 예방 환경디자인(셉테드)을 적용해 우범지역을 안전한 환경으로 개선했다.

덕포1동은 2010년 여중생 성폭행 살해 사건(김길태 사건)이 발생한 대표적인 서민 주거지역이다. 어둡고 좁고 구부러진 골목길이 많아 강력범죄가 자주 발생한 곳이다.

17일 오후 4시 덕포1동 주민센터 앞에서 '안전한 덕포동 프로젝트' 준공식이 열렸다.

이날 준공식에는 사업 참여 기관 대표와 지역 주민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달라진 범죄 예방 환경을 둘러봤다. 이 사업으로 범죄에 취약한 상태였던 '어둡고 좁은 골목길'에 조명이 설치돼 밝아졌다.

폐쇄회로(CCTV)를 증설하고 안전비상벨과 도로 반사경도 설치돼 안전한 골목길로 탈바꿈했다.

골목길 120여 곳의 담벼락에는 밝고 명랑한 디자인 벽화가 그려졌다.

벽화 그리기 작업에는 덕포동 주민들이 주민설명회 등에서 제시한 의견이 반영됐다.

부산지검이 등 민간 자원봉사자와 주민들이 벽화 그리기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재능기부 형으로 진행됐다.

범죄의 유혹에 노출된 위기 청소년들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부모와 함께하는 미술학교'는 예술치료 전문가가 미술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부모도 교육에 참여해 아이들이 마음을 잡도록 유도하는 접근 방식이다.

김희관 부산지검장은 "셉테드는 강력범죄, 성폭력범죄, 묻지마범죄 등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환경을 제거함으로써 어린이와 여성이 거리를 안심하고 활보하는 안전한 환경으로 탈바꿈하는 사업"이라며 "셉테드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환경뿐 아니라 소프트웨어적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산지검은 덕포동 셉테드 사업의 성과를 분석한 뒤 지역 현실에 맞는 맞춤형 환경 개선 전략으로 발전시켜 2014년 2·3차 사업 대상지를 선정해 연관된 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스키용품 장만하세요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4층 스키 시즌 매장에서는 스키 및 보드복과 고글 장갑 등 다양한 스키용품을 선보여 매장을 찾은 고객들이 살펴보고 있다.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제공

'외항상선 3급 해기사 양성' 교육생 모집

한국해양수산연수원(원장 정형택)은 무한한 가능성의 바다에서 꿈을 실현시켜나갈 오션폴리텍 '제22기 외항상선 3급 해기사양성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오션폴리텍은 비 해양계 출신 청년실업자를 대상으로 9개월의 단기과정으로 운영되는 해기사 양성프로그램이다. 짧은 교육기간에도 불구하고 교육내용에 대한 수료생들의 만족도가 높고 해운업계에서도 과정을 수료한 해기사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외항상선 3급 해기사양성과정은 교육비, 교재비, 숙식비가 전액 국비무료로 진행된다. 또 6개월의 이론과정과 1년간의 승선실습 후 외항 해운업계에 취업할 수 있다. 지원자격은 전문대졸 이상이며 모집인원은 150명(항해 90명, 기관 60명)으로 2014년 1월 21일까지 모집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홈페이지(www.seaman.or.kr) 및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양성교육팀(051-620-5774~5)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혜교기자 hk@metroseoul.co.kr

성매매 알선 유흥주점 잇따라 적발

부산경찰청 성매매안전과는 17일 룸살롱을 찾은 손님과 여종업원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행위 처벌법 위반)로 조모(36)씨 등 룸살롱 업주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성매매 혐의로 여종업원 박모(24)씨와 손님 권모(40)씨, 성매매 알선 혐의로 모텔 대표 김모(66)씨 등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부산 범일동의 한 모텔에 자리잡은 3개의 룸살롱에서 이달 12일 권씨 등 손님들에게 술을 팔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텔 대표인 김씨는 룸살롱 업주와 짜고 손님에게 성매매 장소 시설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고객을 유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이달 11일 부산 사상구의 한 모텔 지하에 유흥주점을 차려놓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이모(48)씨, 윤모(57)씨 등 업주 3명과 종업원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연말연시 기업형 성매매 업소와 룸살롱은 물론 성매매를 알선하는 유흥주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금투협 자산관리 특강

한국금융투자협회부산지회는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와 공동으로 오는 20일 오후 4시부터 지역 내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자산관리 특강'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전문가에게 듣는 펀드투자 노하우'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특강은 최근 국내외 경제 동향을 살피고 이에 따른 향후 유망 펀드를 선택할 수 있는 노하우를 습득함으로써 일반 투자자들 자산관리전략을 짤 수 있도록 마련됐다.

강사로는 이기원 신영자산운용 마케팅본부장이 나선다. 참가비는 무료. 교육신청은 e메일(donlnuc@kofia.or.kr) 또는 전화(051-867-9747)로 하면 된다.

사립학교법인협 부산 회장 영산학원 노찬용 이사 선임

학교법인 영산학원의 노찬용(사진) 이사가 최근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개최된 (사)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부산시회 정기총회에서 제7대 회장으로 선임됐다. 노찬용 신임 회장은 2009년부터 영산대의 학교법인인 성심학원의 제4대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재한외국인사회통합지원센터 법인이사와 한국대학법인협의회 감사, 부산고등법원 조정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신임 회장의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다.

크리스마스 케이크 만들어 볼까

국제제과제빵커피직업전문학교 이벤트

국제제과제빵커피직업전문학교는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2013년 크리스마스 케이크만들기 이벤트'를 실시한다.

행사 일정은 23일 월요일 오전 10시, 오후 3시, 저녁 7시, 24일은 오전 10시, 저녁 7시이다.

가격은 케이크 2호, 크리스마스 장식품포함 2만원 (고구마케이크, 초코생크림케이크 중 선택).

단, 생크림케이크는 장식용과일을 별도로 준비해야하고, 기타 장식물은 별도 준비해도 된다.

신청 방법은(cafe.daum.net/ksk(e00)학교 카페 크리스마스케이크이벤트란에 댓글신청(이름, 휴대전화, 케이크품목, 예약시간, 예약자수, 참여인원) 또는 전화 예약하면 된다.

단, 사전 예약이며 입금 후 환불은 불가하다. 문의 051)464-8333

market index <17일>

코스피	코스닥
1985.74 (+4.58)	498.15 (-2.04)

금리	환율
2.88 (-0.04)	1052.00 (-0.50)

환율 내려도 안 사는 외국인 '왜'

장외시장서 하락탓 주식매수 타이밍 못잡아· 이익실현도 이유

원·달러 환율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외국인은 연일 '팔자'에 나서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6일 외국인은 646억원 매도 우위로 5일째 순매도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외국인이 팔자세로 일관한 덕에 코스피지수도 이날까지 5거래일 연속 조정을 받았다. 지금까지 외국인은 환율이 떨어지면 국내 주식을 '매수'하던 것이 관행이었다. 그런데 환율이 장외시장에서 큰 폭으로 뚝 떨어지면서 외국인들이 그 기회를 놓쳤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외환 전문가들은 "국내시장이 열리기 전이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주식을 매수할 틈이 없었다"면서 "이 때문에 환율은 환율대로 떨어지고, 주식시장은 약세인 상황이 지속됐다"고 판단했다.

외국인이 순매도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지난 7월부터 외국인들은 국내 주식을 앞다퉈 사들였는데 그동안 지수는 1700선에서 2000선 가까이 크게 올라왔다. 환율도 1160~1170원대에서 꾸준히 떨어져 1050원대까지 하락한 상태다. 이 기간 동안 외국인은 주가 차익과 환차익을 얻어 본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익 실현을 했다는 것. 이와 함께 앞으로 환차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문호철 동부증권 연구원은 "앞으로 외국인의 순매도 규모는 줄어들겠지만, 테이퍼링 우려와 국내 기관의 연말 결산 상황을 고려하면 적극적인 매수로 돌아설 공산이 크지 않다"고 대답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외국인이 워낙 오랜 기간 매수해왔으니 이제 마무리될 때가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안상미기자 ssm @metroseoul.co.kr

STX 조선 경영난 와중 회장에 10억대 성과금

심각한 경영난에 빠진 STX조선해양이 강덕수 회장에게 10억원이 넘는 성과금을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 회장은 올해 1월 STX조선해양의 2012년 경영성과 평가를 통해 10억4000만원의 성과금을 받았다.

문제는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STX조선해양 성과 평가위원회가 강 회장에게 성과금을 주기 위해 성과달성률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성과금이 지급된 올해 1월 STX조선해양은 재무구조 및 유동성 악화로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이다.

STX조선은 강 회장에게 10억원이 넘는 성과금을 지급한 지 석 달 뒤인 올해 4월 산업은행 등 채권단에 자율 협약을 신청했다. /이국명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 142
TEL (02)721-9800 FAX (02)721-98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충학
편집국장	조인호
부산지사장·전무	김임준
서울광고문의	(02)721-9451 3
부산광고문의	(051)959-2100
독자센터	(02)721-9801

2002년 5월 22일 창간 / 등록번호 서울라00045 가00209

억울한 동양 피해자들 동양그룹이 발행한 기업어음(CP)을 샀다가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을 기다리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동양그룹의 사기성 회사채·기업어음 발행과 고의적 법정관리 신청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이날 현 회장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연합뉴스

'한맥 손실' 60개사 연대부담

한맥투자증권(이하 한맥)의 주문 실수로 인한 손실을 다른 증권사들이 연대 부담해야 할 전망이다. 1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의 파생상품 회원 60개사는 이번 한맥의 주문 실수 사고로 예상되는 약 460억원을 연대 부담해야 한다. 거래소는 해당 대금에 대해 증권사들이 출연한 손해배상공동기금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정기자

14개월째 생산자물가 하락

생산자물가가 11년 만에 14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저물가 고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1월 생산자물가지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0.9% 하락했다. 이로써 생산자물가지수는 지난해 10월 0.5% 하락한 이후 14개월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다. /김민지기자

'아메리칸 드림=정규직'

글로벌 이코노미

美도 비정규직 최근 급증 770만명이 하루살이 급규

마사지 치료사, 멕시코 식당 웨이터, 샌드위치 배달부, 학교 안내 접수원.

최근 미국 경제매체 CNN머니는 직업 4개를 가지고도 먹고 살기 힘든 남자 바비 빙엄(37)의 이야기를 소개하며 저임금 파트타임 노동자의 서글픈 현실을 전했다.

빙엄은 2008년 대학을 졸업한 뒤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치열한 경쟁에 밀려 번듯한 직장을 찾지 못했다. 결국 그는 낮은 임금의 '차선책'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매주 60시간씩 일하고 빙엄이 버는 돈은 400달러(약 42만원). 1년이면 약 2만 달러(약 2100만원)다. 그는 월실 한 개짜리 아파트에서 룸메이트와 방세를 나눠 내며 함께 생활한다. 저축은 꿈도 못 꾼다. 월급으로 생활비 대기도 벅차다. 어쩌다 휴가는 안 간 지 오래됐다.

"밤낮으로 뼈 빠지게 일을 해도 제 한 입 풀칠하기 바쁩니다.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건 엄두도 못 내죠. 살아생전에 그런 날이 올지 모르겠어요."

미국에서 빙엄과 같은 처지의 사람은 한둘이 아니다. 2013년 현재 770만 명의 미국인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이는 2006년 평균 410만 명에 비하면 크게 증가한 수치다.

지난 5월 맥도날드, 버거킹 등 미국 내 100여 개 도시의 패스트푸드 식당 종업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시간당 최저임금을 현행 7.25달러에서 15달러로 올릴 것을 촉구했다.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거주하는 이모씨는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뒤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한국계 회사에 취직했다"면서 "회계학 전공을 살려 운 좋게 미국에서 일자리를 찾았다"고 밝혔다. 이씨는 "미국도 한국만큼이나 취업난이 심각하다"며 "좋은 대학을 나와도 기업에서 요구하는 직무 능력이 없으면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조선미기자 seonmi@

중저가 태블릿 '아톰' 달고 씽씽

중저가 태블릿 PC의 성능이 한 세대보다 최소 2배 이상 향상된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태블릿 PC 판매량이 늘어날 전망이다.

인텔코리아는 17일 아톰 프로세서 'Z3000' 시리즈를 탑재한 에이수스, 델, 에이서, HP, 레노버 등의 제품을 공개했다.

코드명 '베이트레일'로 개발된 'Z3000' 프로세서는 이전 세대 대비 2배의 컴퓨팅 성능, 최대 3배의 그래픽 성능을 구현한 게 특징이다.

이날 인텔코리아가 공개한 경쟁 제품 대비 성능 테스트 결과를 보면 아톰 Z3000은 엔비디아, 퀄컴보다 2~3배 나은 수치를 보여줬다.

물론 아톰 최신 시리즈가 인텔의 프리미엄 프로세서인 i5 이상의 제품군보다 뛰어난 것은 아니지만 10만~20만원대 중저가 태블릿 PC나 하이브리드 제품에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희성 인텔코리아 사장은 "아톰 최신작이 다양한 브랜드에 탑재되면 소비자 선택의 폭이 훨씬 늘어날 것이다. 누구나 쉽게 모바일 컴퓨팅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다양해진다"고 설명했다. /박성훈기자

주연테크 컴퓨터

주연테크 컴퓨터는 Windows 8 을 권장합니다.

" 인텔® 코어™ i3-3240 프로세서 + Windows® 7 Home Premium 탑재!! "

운수대통 S324A + 20형 LED 모니터

699,000원
(부가세 포함)

▶ 운수대통 S324A 본체사양
인텔® 코어™ i3-3240 프로세서
Windows® 7 Home Premium
인텔 H61 익스프레스 칩셋
4GB(1066MHz) DDR3 RAM
S-ATA2 500GB HDD(7200RPM)
M-DISC / 5.1 채널 사운드 지원
10/100M LAN 내장

▶대박 할인 세트상품
주연 20형 WIDE LED 모니터

운수대통 G163A

- 인텔® 셀러론® 듀얼 G1630
- Windows® 7 Home Premium
- 인텔 H61 익스프레스 칩셋
- 4GB DDR3 RAM
- S-ATA2 500GB HDD
- DVD-ROM · 5.1채널 사운드 지원
- 10/100 LAN내장

499,000원

운수대통 S41H

- 인텔® 코어™ i3-4130 프로세서
- Windows® 7 Home Premium
- 인텔 H81 익스프레스 칩셋
- 4GB DDR3 RAM
- S-ATA2 500GB HDD
- Geforce GT630(1GB)
- M-DISC · 5.1채널 사운드 지원
- 10/100 LAN내장

789,000원

JL-500 일체형PC

- 인텔® 펜티엄® B970
- Windows® 7 Home Premium
- 인텔 HM76 칩셋
- 21.5형(54.6cm), 16:9 LED
- 4GB DDR3 RAM
- S-ATA2 500GB HDD
- 웹캠장착 · DVD-Multi
- 10/100 LAN내장
- 무선키보드&마우스 증정!

699,000원

엑설런트 AV457H

- 인텔® 코어™ i5-4570 프로세서
- Windows® 7 Home Premium
- 인텔 H81 익스프레스 칩셋
- 8GB DDR3 RAM
- S-ATA2 1000GB HDD
- Geforce GTX650(1GB)
- M-DISC · 5.1채널 사운드 지원
- 10/100 LAN내장

999,000원

엑설런트 A477HW

- 인텔® 코어™ i7-4770 프로세서
- Windows® 7 Home Premium
- 인텔 B85 익스프레스 칩셋
- 8GB DDR3 RAM
- S-ATA2 1000GB HDD
- Geforce GTX650(1GB)
- M-DISC · 5.1채널 사운드 지원
- 10/100 LAN내장

1,299,000원

노트북 JM121-CD2320

- 인텔® 셀러론® 1017U
- Windows 8 (64bit)
- 12형(29.54cm), 16:9 LED
- 2GB DDR3 RAM
- S-ATA2 320GB HDD
- 10점 터치 화면/블루투스
- 무선-10/100 LAN내장
- 웹캠장착
- 30x20x2.1(WxHxD)-1.48kg

449,000

공통사양

구입문의

070-7600-2375

주의사항

주연테크만의 프리미엄 서비스!

365일 서비스 상담전화
1588 – 1118

출장 A/S 저녁 9시까지 연장!

고객님의 말씀을 대표이사가 직접 듣습니다.

주연테크는 이렇습니다!

친환경·친건강 컴퓨터

탄탄한 기업 주연테크

전자파 적합성평가(인증)를 꼭 확인하세요!

intel CORE i3 inside

주연테크 컴퓨터 www.jooyon.co.kr

현금영수증 30%·월세 50% 공제

2013 연말정산 새 포인트

올해부터는 연말정산에서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20%에서 30%로 높아지고, 대신 신용카드 공제율이 20%에서 15%로 낮아진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자료를 17일 발표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현금영수증 활성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10%포인트 확대된 반면 신용카드 공제율은 5%포인트 축소된 게 특징. 그러나 대중교통비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한도를 100만원 추가함에 따라 신용카드 공제 한도가 최대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됐다.

또 무주택 서민 근로자 지원을 위해 월세 소득공제율도 40%에서 50%로 올렸다. 월세 소득공제와 주택임차자입금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 대상 주택에 국민주택 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된다.

초·중·고교 방과후학교 교재 구입비 취학 전 아동을 위한 유치원 어린이집의 방과 후 과정과 교재 구입비, 급식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방과후학교 교재 구입비는 학교 등에서 일괄 구입하는 것에 한하되, 학교 외에서 구입한 것은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한 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해 배우자가 없고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싱글맘' 또는 '싱글대디'에게 100만원씩 추가 공제를 해준다. 이와 함께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소득공제를 배제하기 위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지정기부금, 청약저축 등 9개 항목의 소득공제 종합 한도는 2500만원으로 제한된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5일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곳에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대부분의 소득공제 증빙 자료를 조회, 출력할 수 있다.

/김민지기자 minji@metroseoul.co.kr

'두자녀' 맞벌이 한 자녀씩 공제땐 손해

올해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자들이 실수하기 쉬운 사항들을 소개한다. 우선 근로자 자신을 제외한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1명당 15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소득금액 합계액은 근로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등을 포함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를 중복으로 기본 공제 받을 수 없다. 만약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인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각각 1명씩 기본공제 대상으로 하면 다자녀 추가공제(100만원)를 받을 수 없다. 다자녀 추가공제를 받으려면 한 사람이 2명 모두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해야 한다.

/김민지기자

아파트 '이웃사촌' 부활중

커뮤니티시설·취미교실 중심 소통 웃음꽃 피고
공동육아공간 만들어 입주민간 '품앗이 돌봄'도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거주 중인 민병희(36·가명)씨는 요즘 한창 라인댄스 삼매경에 빠졌다.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에서 무료로 배우다 보니 굳이 멀리 있는 댄스학원까지 가는 불편을 겪지 않을 뿐 아니라 경제적 부담 없이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어서다. 무엇보다 강사가 옆집에 사는 이웃이라 친목을 도모할 수 있어 만족스럽다.

'소통 단절'의 대명사로 불리던 아파트가 변하고 있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삭막한 공간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이웃끼리 서로 돕고 정을 나누는 새로운 주거문화의 장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입주민끼리 배우고 가르치고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화곡동 '화곡 푸르지오' 가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을 중심으로 소통의 장을 마련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아파트는 기존 컴퓨터실을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전용 공간인 '푸르홀'로 꾸며 라인댄스교실, 푸르미 합창단, 클래식 기타 등 약 26개의 커뮤니티 활성화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 중이다.

특히 이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 별도의 비용을 내고 외부 강사를 고용하는 게 아닌, 관련 재능을 가진 이웃들이 서로 선생님이 돼 무료로 가르친다는 점에서 반응이 좋다. 참여율이 높은 것은 당연하고, 입주민끼리 서로 친구가 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키즈룸도 이어룸도 '이웃사촌'

공동체 프로그램에 대한 입주민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면서 건설사와 정부도 아파트를 짓기 전부터 소통하기 좋은 아파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서울 강동구 천호동 '래미안 강동팰리스'에 여성가족부와 함께 공동육아나눔터를 조성키로 했다.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 돌봄 기능을 보완하고 이웃 간 품앗이가 가능하도록 단지 내 '키즈룸'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삼성물산 측은 이와 관련해 장난감이나 도서 구입 등의 기자재비 및 품앗이 소모임 지원비를 1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박선옥기자 sun0320@metroseoul.co.kr

한국도자기 70주년 기념 제품 "예술이네" 17일 서울 역삼동 한국도자기 매장에서 신진 작가 황스장, 김자배, 김태주, 마리킴(왼쪽부터)이 한국도자기 창립 70주년을 기념한 디자인 콜라보레이션 라인 'YAP(Young Artists Project)'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IT기기 '킬러 컬러' 입었네

소비자 유혹 色 마케팅

아이폰5S 샴페인 골드 갤노트3 블러시 핑크… 제품별 느낌 살려 인기

"색깔만 봐도 어떤 제품인지 안다!"

평소 접하기 어려운 독특한 컬러가 제품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 특정 색을 떠올리면 해당 제품이 눈앞에 그려질 정도로 컬러 마케팅의 힘은 의외로 크다.

대표적인 색상이 '샴페인 골드'다. 애플은 아이폰5S를 출시하며 '스페이스 그레이', '실버'와 함께 새로운 색상인 '골드'를 선보였다.

노란색 계열의 골드는 화사함, 생기발랄함 등을 상징해 예로부터 화폐, 보석 등에 사용됐다. 이에 애플은 신제품에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덧붙이기 위해 골드 컬러를 이용했다.

특히 골드는 중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색상 중 하나로, 이 제품은 중국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국내에서도 애플 유저들은 '골드' 대신 '샴페인 골드'라는 색상명을 사용하며 럭셔리한 이미지를 제품에 주입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대화면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3'는 '블러시 핑크'라는 독특한 분홍색으로 여심을 자극하고 있다. 핑크는 여성들의 열렬한 '워너비' 컬러다. 이 제품에 맞춘 S펜에도 같은 색을 입혔다.

소니가 최근 선보인 고급 노트북 '바이오 프로 13 레드 에디션'은 강렬한 레드로 깊은 인상을 주고 있다. 이 제품이 지닌 레드는 일반적인 붉은색과는 큰 차이가 있다. 핑크, 핑크 실버, 레드 컬러 3가지 색상에 UV 코팅을 순차적으로 입히는 총 4단계의 도장 작업을 진행했다.

컬러마케팅에 성공한 IT기기들. 왼쪽부터 아이폰5S, 갤럭시노트3 블러시핑크모델, 바이오 프로 13 레드 에디션

덴마크 오디오 브랜드 뱅앤올룹슨의 스피커 '베오플레이 A9'은 '노르딕 스카이'라는 유니크한 컬러를 머금고 있다. 이 색은 백야 현상이 일어나는 북유럽 밤을 반영한 우아한 핑크 계열이다.

소니코리아 관계자는 "색채심리학자 파버 비렌은 '모든 컬러는 제각각 인간에게 다른 느낌을 제공하며 상품 판매, 성격 형성, 음식 맛까지 좌우한다'고 말했다. IT업체들이 유니크한 컬러로 제품의 철학을 형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엄마, 피아노가 20만원도 안 하네요" 17일 서울 송파동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어린이 모델들이 삼익 디지털 키즈 피아노를 선보이고 있다. 롯데마트는 31일까지 100개 점포에서 이 제품을 시중가보다 33% 가량 저렴한 15만9000원에 선보인다. /연합뉴스

"기적50년서 희망100년으로"

전경련 신축회관 준공식 허창수회장 슬로건 제시

"정치·경제 중심지 여의도에 신축 회관 준공을 계기로 기적의 50년을 넘어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열어가겠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17일 열린 전경련 신축 회관(사진) 준공 기념행사에서 '기적의 50년을 넘어 희망 100년으로'라는 슬로건을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허 회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50년 전 척박한 환경에서 끼니를 걱정하던 대한민국이 교역 규모 8위, 경제 규모(GDP) 15위라는 놀라운 기적을 이뤘다"며 그 과정에는 "조국 근대화를 위해 무에서 유를 이룩하겠다는 확신과 의지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 우리 경제는 기로에 서 있으며, 다시 한번 기적의 미래 100년을 열어가기 위한 새로운 비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현오석 경제부총리, 윤상직 산자부 장관,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등 각계 주요 인사 400여 명이 참석했다.

준공행사에 앞서 박 대통령은 전경련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일자리 창출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를 포함한 창조경제 구현 ▲중소협력사의 해외 동반 진출 지원 방안 등 재계 의견을 청취했다.

전경련 신축 회관은 옛 회관 자리에 지하 6층~지상 50층 규모로 지어졌다. /김태균기자

열차 감편 운행 시간표 다음지도서 확인하세요

철도노조 파업으로 달라진 전철 시간표를 스마트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포털 다음은 최근 감편 운행되고 있는 5개 철도 노선의 열차시간표를 전국철도노동조합의 파업 종료 시까지 제공한다.

다음지도 관계자는 17일 "3호선, 분당선, 경춘선, 경의선, 용산~동인천 급행 등 5개 감편 노선에 대한 이용자 혼선을 줄이고자 변경 열차시간표를 16일부터 반영하고 있다"고 밝히고 "감편 열차시간표는 다음지도 PC, 모바일 웹, 앱에서 확인 가능하며 철도 파업 종료 시 기존 시간표가 실시간 반영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음지도 지하철 위젯도 변경된 열차시간표를 반영한다. /박성훈기자

한화 中 빈곤지역 초교에 태양광 설비 기증

한화그룹(회장 김승연)이 중국 빈곤지역 초등학교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기증하는 '한화-희망공정 해피선샤인' 캠페인이 첫 번째 결실을 맺었다.

한화그룹은 17일 중국 후베이성 우펑현 지역의 위캄관펀초등학교에서 30kW 규모의 지붕형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기증식을 가졌다.

이는 한화그룹이 지난 2011년부터 전국의 사회복지시설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무료로 설치해주며 '나눔경영'을 실천하는 '해피선샤인' 캠페인을 중국으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날 기증식에서 금춘수 한화차이나 사장은 "지난 8월 말 협약식을 통해 중국에 심은 해피선샤인 씨앗이 오늘 위캄관펀초등학교에서 첫 결실을 맺게 됐다"며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의 '함께 멀리' 정신에 따라 중국 경제와 사회 발전에도 공헌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태균기자

보금자리 공공분양 15% 이하로 축소

공공임대 현 35% 이상 유지

앞으로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물량이 15% 이하로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지구 공공분양주택 공급 비율이 현행 지구 전체 주택의 25% 이상에서 15% 이하로 대폭 축소된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은 현행 35% 이상을 유지키로 했다.

이는 주변 집값 하락과 민간 분양 시장 교란 등의 문제가 제기된 보금자리주택 공공분양 물량을 축소하고 공공임대 물량은 늘려 전월세 시장 안정을 도모키로 한 '4·1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및 '7·24 전월세시장 안정대책'의 후속 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공공 부문은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역량을 집중하게 돼 전월세 시장 안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선옥기자

뉴스 & 뉴스

네이처셋 50% 할인 행사

● 한독이 연말을 맞아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네이처셋'의 50%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본사 직영 쇼핑몰 네이처셋몰에서 네이처셋 전 제품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으며 특히 네이처셋 베스트셀러 제품인 '홍오메가XO'도 50% 할인된 가격인 2만3500원에 구입 가능하다.

소아백혈병 새 치료제 출시

● 사노피 아벤티스 코리아는 최근 두 가지 이상의 타 치료법에 반응이 없거나 병이 재발한 소아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환자를 위한 치료제 '에볼트라'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에볼트라는 지난 2011년 국내에서 사용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 전 세계 40여 개 국가에서 시판 승인을 받은 상태다. 회사 관계자는 "대체 약제가 없는 상황에서 에볼트라가 완치 가능성이 있는 소아암 환자를 위한 새로운 치료 옵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ADHD 부전자전 "유전성 높다"

'소아 정신질환 1위' ADHD 전문가 우메시 제인 교수 "비정신자극제 약물 치료·인지행동 치료 병행해야"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누구나 한 번은 들어봤을 것이나, 특히 최근 ADHD 치료제가 공부 잘하는 약으로 오인되기도 하고 소아·청소년 ADHD가 성인 ADHD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ADHD에 대한 관심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ADHD 진료 환자 수는 2009년 약 6만4000명으로 2003년 이후 6년 사이에 환자가 2배 이상 증가하기도 했다. 더욱이 ADHD는 소아정신과 질환 중 가장 발생 비율이 높은 질환으로 아이들의 행동장애, 학습장애 등 발달 과정에 영향을 준다. 이에 최근 ADHD 진단과 치료의 변화에 대한 논의를 위해 방한한 우메시 제인 캐나다 토론토대 정신의학과 교수에게 소아 ADHD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ADHD의 가장 흔한 증상은 질환의 이름대로 주의력 부족이다. 또 성인 ADHD 환자의 증가가 어린 시절의 적절한 치료와 연관이 있는지 확신할 수 없지만 어렸을 때부터 그 증상이 이어졌을 것으로 본다."

우메시 제인 교수는 ADHD를 소개하는 말을 먼저 꺼냈다. ADHD는 흔히 나타나는 소아정신과 질환 중 하나이며 지속적인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및 충동성 등의 증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더욱이 ADHD는 아동의 정상적인 학교 생활과 가정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또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가족력도 무시할 수 없는데 그는 ADHD가 유전성이 높고 가족력과 관련 있는 질환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우메시 제인 교수가 'ADHD'라고 쓰인 기념 티를 보여주기 위해 슈퍼맨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다.

"ADHD 치료를 위해서는 환자에게 직접 질환에 대해 교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질환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려주고 주위의 도움을 통해 행동적(좋은 습관 학습), 정신적(부정적인 생각에 대한 관리), 교육적(더 나은 학습을 위한 전략 수립)인 측면에서 종합적인 치료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말이다."

이어 그는 ADHD 치료를 언급했다. 부모가 자녀에게 ADHD에 대한 교육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하며 아이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스트레스 레벨을 잘 조절하고 있는지 언제나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한다.

또 그는 약물치료에 대한 얘기도 빠뜨리지 않았다.

그는 "ADHD 치료제는 도파민과 도파민과는 달리 비정신자극제인 노르에피네프린 두 가지로 나뉜다. 두 약 모두 뇌의 특정 부위인 시냅스라 불리는 신경 영역에 작용해 효능을 나타낸다"고 말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노르에피네프린은 아토목세틴(ATX) 제제이고, 도파민은 메칠페니데이트(MPH) 제제인데 아토목세틴과 메칠페니데이트 제제 모두 오남용의 가능성이 있지만 메칠페니데이트는 규제약물, 아토목세틴은 비규제약물이라는 차이점이 있다.

이어 그는 "약물치료가 그들의 문제와 생활 습관의 제어 등 모든 증상을 해결할 수 없지만 적시에 그에 맞는 적절한 행동을 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제안한다면 인지행동 치료와 같이 라이프스타일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비정신자극제 약물치료를 권장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ADHD는 본인이 어떻게 적응하고 거기에 맞춰 생활해나가는가에 달렸다. 제대로 된 치료나 처방을 받지 못할 경우 치명적으로 변할 수 있으니 적절한 치료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송채은 기자 hsoul38@metroseoul.co.kr

송년회식 '건강 백기사' 모여!

숙취해소·체지방 감소 도움되는 기능성식품들

술자리의 계절이 돌아왔다. 12월에는 연말 분위기에 들떠 과음하게 되면 속이 상하거나 다음날 숙취로 고생하기 십상이다. 더욱이 술과 어우러지는 고열량 안주는 뱃살은 물론 체중을 증가시키는 결정적 요인이 된다. 이렇듯 모임이 잦은 연말에는 숙취 해소 및 체지방 감소 등에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좋은 안주와 함께 술을 먹거나 약한 술에서 강한 술 순서로 마시면 덜 취한다는 통념이 있지만, 개인차 등으로 음주 후 두통이나 속쓰림을 줄이려면 사전에 숙취해소제를 마셔주는 것이 좋다. 동아제약 '모닝케어 플러스'는 유산균 발효 다시마 추출물을 원료로 해 숙취 해소 및 알코올성 손상으로부터 간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준다.

고열량 음식 섭취로 체지방 관리에 어려움을 겪거나 체중 증가가 걱정인 사람이라면 뷰티푸드 브랜드 '비비프로그램'에서 출시한 '이너그린'(사진 왼쪽)이 좋다. 순수 정제된 녹차 추출물이 함유돼 항산화 효과 및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고 원활한 신진 대사를 도와주는 건강기능식품이다.

잦은 모임 속 과음과 과식을 하게 되면 위와 장의 기능이 약화되고 유익한 균들이 사라져 소화불량, 과민성장증후군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땐 2~3일 정도 휴식을 취하고, 장 운동을 촉진하고 면역기능 강화에 도움을 주는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을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다.

셀바이오텍의 '듀오락 위청장'(오른쪽)는 장에 좋은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2종에 소화에 도움이 되는 덴마크산 효소 2종을 함께 함유하고 있어 면역기능 개선은 물론 소화 작용에도 도움을 준다.

/김승호 기자 pmm@

한우·한돈 20~30% 할인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하나로클럽에서 열린 '농협안심한우 10관 마리·한돈 100관 마리 판매 돌파 기념 행사'에서 소비자들이 시중가보다 20~30% 저렴한 한우·한돈을 구매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女 유방암 40대 '최다'… 서구보다 빨라

국내 유방암 발병 시기가 서구에 비해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012년 7월부터 12월까지 약 6개월간 18세 이상 여성 중 유방암 수술을 받은 4574건을 분석한 결과 40대가 1658건(36.2%)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서구에서 유방암이 많이 발생하는 연령이 60대임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에서 유방암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40대 다음으로 유방암 수술을 많이 받는 연령은 50대(30.3%)와 60대(14.9%)였으며 30대에서도 457건(10.0%)이나 발생했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평가 대상 기관 160곳 가운데 수술 실적이 5건을 넘어 종합점수 산출이 가능한 99개 기관을 대상으로 유방암 진단·치료과정의 적절성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 상급종합병원은 100점 만점에 98.43점을 받았지만 병원급은 76.39점으로 의료기관 종류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종양을 제거한 부분에서 잔존 암이 발견되는 비율도 상급종합병원은 0.4%인 데 비해 병원급과 의원급은 각각 1.2%와 2.1%로 조사됐다. /김제동 기자

책 읽어주는 영부인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16일(현지시간) 남편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미국아동국립의료센터를 찾은 미셸 여사가 어린이 환자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1조 잭팟' 꿈에 부푼 미국

메가밀리언 로또 21주째 1등 안 나와 ·크리스마스 앞두고 구매 열풍

무려 1조원의 잭팟도 가능하다.

16일(현지시간) USA투데이 등 미국 언론들은 미국 전역이 성탄절을 앞두고 로또 열풍에 휩싸이고 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메가밀리언 로또 1등 당첨 금액이 이날 오후 현재 5억8600만 달러(약 6170억원)로 불어나 6억 달러 돌파를 눈앞에 뒀기 때문이다.

메가밀리언은 10월 4일 이후 21회 연속 추첨에서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 1등 당첨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특히 성탄절 특수를 앞두고 있어 지난해 3월 세워진 메가밀리언 사상 최고액(6억5600만 달러)을 거뜬히 넘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16일(현지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복권 판매점에서 한 남성이 구입한 메가밀리언 복권 두 장을 내보이고 있다. /AP 연합뉴스

한편 이번 로또 열풍이 메가밀리언 회사 측의 상술 때문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메가밀리언 1등 추첨은 기본 5개와 메가볼 1개 등 6개 숫자를 맞히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회사 측은 지난 10월부터 기본 숫자를 56개에서 75개로 늘리고 대신 메가볼 숫자는 46개에서 15개로 확 줄였다. 따라서 상금 수령자는 많아졌지만 1등 당첨 확률은 1억7600만분의 1에서 2억5900만분의 1로 낮아졌다.

이는 골퍼가 파3 홀에서 연속 홀인원을 작성할 확률인 1억5600만분의 1보다도 낮다.

/미국=김기혁 kim.ee@metroseoul.co.kr

킁킁! 송로버섯 채취 애견이 효자

metro France

남프랑스 주민들이 송로버섯 채취로 큰 수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로버섯은 채취 방식이 독특하다. 훈련된 개가 떡갈나무 밑의 냄새를 맡아 송로버섯을 찾아내는 것. 코트다쥐르에서 송로버섯을 채취하는 막스 조르주는 이러한 방식으로 개당 40g 정도 나가는 송로버섯을 채취한다.

그는 "지난 50년 동안 송로버섯을 채취해왔다. 검은 송로버섯은 특히 귀하기 때문에 값이 대단히 비싸다"고 설명했다.

대형 강아지 '가디트'와 함께 송로버섯 사냥에 나서는 그는 "이곳에 떡갈나무 구균을 심어놨다. 이렇게 되면 땅속에 송로버섯이 자라게 된다"고 했다.

그는 또 "보통 떡갈나무 한 그루의 가격은 15유로(약 2만1000원)로 떡갈나무 아래 송로버섯이 자라나려면 적어도 10년 정도 걸린다. 우리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얼마나 송로버섯을 채취했는지 말하지 않는다. 워낙 채취량이 적기 때문에 많이 채취했을 경우 질투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채취된 송로버섯은 높은 가격대로 판매된다. 송로버섯 거래조합이 정한 금액에 따르면 채취량에 따라 1kg당 600~800유로(약 115만원)까지 나간다.

/파스칼 플라티에 부르당 기자
정리=정주리 인턴기자

16일 베트남 북서부 라오까이성에서 한 주민이 채소 위에 쌓인 눈을 털어내고 있다. 최근 아열대성 기후인 베트남에 최고 20~30㎝의 폭설이 내려 지역 주민들이 눈 구경에 나서는 등 진풍경이 연출됐다. /신화 연합뉴스

베트남에 연이틀 폭설 "웬일이니~"

아열대성 기후인 베트남에 폭설이 쏟아져 화제다.

17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북부 라오까이성의 산악 관광지 사파에 이틀 동안 폭설이 내렸다. 일부 지역은 20~30㎝의 적설량을 기록했다.

사파 지역은 전날 영하권 기온이 하루 내내 이어졌다. 해발 1900m의 고지대에서는 수은주가 영하 2도까지 떨어졌다.

눈 소식이 전해지자 수도 하노이 등에서는 관광객 수천 명이 사파를 찾았다. 사파 당국은 약 5000명이 눈 구경을 하기 위해 현지를 찾아온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주변 도로에는 극심한 교통 혼잡이 빚어졌다. 특히 스노체인이 없는 차량들이 눈길에 갇히면서 교통 체증이 가중됐다.

폭설에 들뜬 상당수 베트남 사람들과 달리 농민들은 채소 등이 모두 눈으로 뒤덮여 울상이다.

사파 당국은 이번 폭설로 꽃 재배농장 100만㎡ 등 약 200만㎡ 규모의 농경지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조선미기자

독도 야욕 안 버린 日 첫 국가안보전략

"영유권 문제 평화적 해결" 중국·북한 위협으로 규정

일본 정부가 외교·안보 정책의 포괄적 기본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을 17일 확정했다.

국가안보전략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를 둘러싼 중·일 대립과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방위력 강화 등이 주요 내용으로 중국과 북한을 '위협'으로 규정했다.

또한 안보전략은 자위대의 해외 군사 활동 등을 염두에 둔 '적극적 평화주의'를 제시하고 무기 수출 3원칙을 재검토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명확하게 담고 있다.

한국과는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안보 협력 기반을 강화한다고 명기했다. 다만 독도 영유권 문제는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 아래 지속적으로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내용을 넣었다.

日 5개년 중기방위력정비계획 주요무기도입계획

무기	수량
글로벌호크 (무인정찰기)	3기
V-22 오스프리 수직이착륙수송기	17기
차기전투기 F-35	28기
수송기	10기
조기경계기	4기
공중급유기 KC-767J	3기
수륙양용 장갑차	52대
기동전투차 (차륜장갑)	99대
잠수함	5척
이지스함	2척
2014~2018 자위대 방위비	24조7000억엔

자료/일본 방위성 · 연합뉴스

집단자위권과 관련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 하지만 정부가 안보전략을 토대로 내년 봄 이후 헌법 해석을 변경,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앞서 아베 신조 총리는 최근 국가안보전략과 신방위대강에 대해 "역사적 문서가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국가안보전략은 1957년 결정된 '국방 기본방침'을 대신하는 문서다.

아베 총리는 일본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창설에 맞춰 지난 9월 안보전략 마련을 지시했다.

/조선미기자

하버드대 폭발물 대피 소동

미국 하버드대학 건물에 폭발물이 설치돼 있다는 보고가 있어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다.

16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캠퍼스 내 기숙사와 과학센터 등 4개 건물에 폭발물이 설치돼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대학 측은 "교내 경찰이 4개 건물에 폭발물이 설치돼 있다는 미확인 보고를 접수했다"며 "만일에 대비해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피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폭발 사고도 없었고 폭발물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조선미기자

고어텍스 스키복 드라이크리닝 안돼

모피·어그부츠·특수소재 레저복 등 세탁 이렇게

스키복, 모피 의류, 어그부츠는 겨울철 자주 착용하지만 관리가 까다로워 무작정 세탁을 하거나 방치하면 손상되기 쉽다.

스키복의 경우 더러워진 부분은 즉시 젖은 수건으로 닦고, 심한 오염일 경우 중성세제를 푼 물을 솜에 묻혀 가볍게 문지른다. 모자나 목선에 달린 털은 마른 수건으로 닦은 후 그늘에서 말려야 변형을 막을 수 있다.

특히 고어텍스 소재의 스키복은 드라이클리닝하면 기능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시즌 중 두 번가량 물세탁하는 것이 좋다. 지퍼·단추 등을 모두 잠근 채 전용 세제를 사용해 헹되 강하게 비틀어 짜지 않도록 주의한다. 말릴 때는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 뉘어 놓는다. 비트 아웃도어 나노쉬시는 블랙야크와 공동 개발한 아웃도어 의류 전용 세제로 통기 구멍의 숨은 때와 오염을 섬유 손상 없이 늦여내 원단 본연의 기능을 회복시켜준다.

◆어그 부츠, 얼룩 지우개 쓱싹

어그 부츠에 쓰이는 스웨이드 안쪽은 양털로 돼 있다. 쉽게 오염되고 물세탁이 어려운 스웨이드는 평소 방수 스프레이를 뿌려 손상을 막고, 때가 묻었을 때는 전용 클리너나 지우개로 오염 부분을 문질러준다. ABC마트에서 판매 중인 얼룩 지우개 '플래 쉐그'는 스웨이드 면의 얼룩을 제거하는 전문 제품이다. 얼룩을 제거한 뒤에는 전용 브러시로 결을 따라 빗어주면 된다.

큰 돈 들여 구입한 모피는 자칫 관리를 소홀히 하면 옷 모양새가 변하고 탈색이 될 수 있다. 모피에는 비 등 물이 닿았다면 마른 수건으로 털의 결을 따라 두드려 물기를 덜어낸 뒤 그늘에서 세로 말린다. 모피는 직사광선이나 다른 옷에 닿지 않는 여유 공간에 걸어둔다. 보관 시 제습제를 사용하면 가죽이 뻣뻣해지므로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일년동안 잘 드셔주신 고객님, 생큐!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들 연말 고객 사은행사 푸짐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연말을 맞아 고객 사은 이벤트를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다.

깨끗한 치킨 'BHC'는 스포츠서울 선정 "2013 브랜드 대상" 수상 기념과 인기 메뉴 '프리미엄 텐더 요레요레'의 출시 기념으로 프리미엄 텐더 요레요레를 구매하면 인기 캘리그래퍼 '하낼리스'가 제작한 한정 다이어리와 미니캘판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벌이고 있다.

샤부샤부 브랜드 '채선당'은 브랜드 탄생 10주년과 프랜차이즈대상에서 대통령표창 수상을 기념하기 위해 전국 가맹점에서 감사 이벤트를 진행했다. 매장 방문객들에게 즉석 응모권을 증정하고 추첨을 통해 자동차·해외여행권 등을 준다.

분식 브랜드 '스쿨푸드'는 페이스북 이벤트 페이지에 '좋아요'를 누르면 참여가 되며 '공유하기'를 클릭하면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행사를 통해 뮤지컬 티켓, 리프트권 등의 상품을 제공한다.

코리안 티 카페 '오가다'는 여러 가지 차와 주전부리 메뉴를 경험할 수 있는 이벤트를 준비했다. 관련 메뉴를 주문하면 쿠폰 5종이 든 '쿠폰북'을 제공하고 도장 쿠폰을 완성하면 음료 1잔 또는 2014 캘린더를 무료로 증정한다.

'미바돔 감자탕'은 크리스마스 추억 만들기 이벤트를 벌이고 있다. 매장에 장식된 크리스마스트리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찍은 사진을 홈페이지에 올리면 매주 추첨을 통해 상품권을 보내준다.

/김종길기자 ...

휴플러스 '휴파티 먹거리' 50% 할인 휴플러스는 추워진 날씨와 실속형 소비 패턴으로 인해 연말 가정에서 홈 파티를 즐기는 이들이 늘어남에 따라 15일부터 연말까지 전국 135개 전 점포 및 인터넷 쇼핑몰에서 랍스터·와인·등심 스테이크·딸기 등 홈파티용 먹거리와 소품 등을 최대 50%까지 할인 판매한다고 밝혔다. /휴플러스 제공

'얼굴 소방수' 미스트 많이 쓰면 흡수방해

건조한 겨울 보습케어 요령

최근 카페 혹은 사무실 등 심하게 건조한 곳에서 얼굴 가까이에 미스트를 분사하는 사람들은 쉽게 볼 수 있다. '촉촉'보다는 '축축'하게 적신 얼굴은 과연 완벽한 보습 케어가 된 것일까? 미스트는 얼굴 너무 가까이에서 뿌리면, 내용물이 이슬처럼 맺혀 오히려 흡수에 방해가 된다고 한다. 얼굴 주위를 촉촉한 환경으로 바꿔 피부의 푸석푸석함을 잊게 만드는 것이 올바른 미스트 사용법으로 30c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뿌리는 것이 좋다.

겨울철이 되면 피부도 피부지만 모발 또한 코트나 목도리 등에 닳아 갈라지며 건조하다는 신호를 보낸다. 이때 임시방편으로 물을 묻히면 오히려 건조한 주변 환경에 의해 수분이 더 빠르게 증발되면서 모발이 더 건조해져 더욱 강한 정전기가 발생할 수 있다. 정전기로 성난 모발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샴푸 후 에센스나 오일 등으로 마무리해주는 것도 좋지만, 외부 활동 중에도 휴대가 용이한 미스트 타입의 케어 제품을 사용하면 좋다. /유현정기자

롯데리아 '새우버거 1+1'

롯데리아는 18, 19일 '새우버거 1+1'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연말연시를 맞아 고객 감사 차원에서 마련된 깜짝 이벤트로 롯데리아 대표 메뉴인 새우버거(3200원) 구매 시 1개를 더 증정한다. 이 기간 오후 2~6시 새우버거 단품에 한해 진행한다. 단 휴게소 및 일부 점포의 경우엔 이벤트에서 제외된다.

뉴스&뉴스

11번가 73% 할인상품 눈길

● 11번가는 연말연시를 맞아 오는 31일까지 스크래치 전시 중고 상품을 판매하는 '득템마켓'을 열고 정가 대비 73% 할인해 판매한다. 주요 상품으로 '2014 에스마 우레탄 스노우체인'(정가 9만9000원)이 5만8700원에 100개 한정으로 판매된다.

농심 국물없는 '하모니' 출시

● 농심은 18일 국물 없는 라면 시장을 정조준한 자체 브랜드 '하모니'(122g·1500원)를 출시했다. 하모니는 짜파게티 용기면 시리즈에 이어 10~20대 신세대를 겨냥해 '고추장 숯불구이'를 콘셉트로 돼지 숯불구이 풍미에 매콤한 태양초 고추장으로 맛을 낸 것이 특징이다. 직화구이에서 맛볼 수 있는 숯불 맛을 농심만의 첨단 기술로 액상화해 더욱 좌간하고 깊은 맛을 준다. 국내 비빔면 중 가장 두꺼운 면발로 식감을 풍성하게 했으며 양배추, 채심, 홍고추 등의 푸짐한 건더기로 전체적인 맛의 조화를 살렸다.

요기요 '해외여행' 경품행사

● 배달음식 오픈마켓 요기요는 17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배달음식 본고장으로 떠나는 해외여행 이벤트를 벌인다. 구글플레이에서 요기요 앱을 내려받거나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후 해당 기간 동안 이 앱을 통해 주문을 하면 이벤트 참여가 가능하며, 여러 번 주문 시 중복 응모가 가능하다. 추첨을 통해 배달음식의 본고장인 이탈리아·중국·일본·홍콩 등으로 떠날 수 있는 왕복 항공권 및 숙박권을 증정한다.

객석도 무대도 '장애' 초월

하트하트재단 마련 '장애인식 개선 위한 하트투하트콘서트' 희망 몽글

지난 15일 오후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는 '특별한' 관객이 자리를 채운 가운데 '특별한' 연주회가 열렸다. 하트하트재단과 예술의전당이 공동으로 기획한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하트투하트콘서트(Heart to Heart Concert)'에 230여 명의 발달장애 아동과 가족들이 함께한 것이다.

이들은 하트하트재단의 전국 장애인종합복지관 발달장애 아동 음악 활동 지원사업인 '하트포르테'를 통해 음악 교육을 받고 있는 발달장애 아동 및 가족들이다.

하트포르테는 하트하트재단이 올해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3개년 제안형 기획사업으로 발달장애 아동의 음악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 전국 장애인복지관 17개소, 350여 명의 발달장애 아동들이 난타·합창·사물놀이·오케스트라·우쿨렐레·가흔 등을 배우며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을 깨닫고 있다.

이번 콘서트 초청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번 기회는 발달장애 아동들에게는 롤모델을 제시해 수업 참여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가족에게는 발달장애를 넘어 재능 계발의 가능성과 희망을 선하고 있다.

음악회를 관람한 김수진 공현장애인종합복지관 팀장은 "하트포르테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오케스트라 수업을 지원받고 있다. 공연을 관람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에게도 바이올린·첼로·플루트 등 평소 자신들이 연주하는 악기가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며 연주하는 것을 보고 '나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돌아가는 시간이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6년 국내 최초 발달장애 청소년 하트하트오케스트라를 창단하고 운영해 온 하트하트재단은 1988년부터 가난하고 소외된 국내외 아동 및 그 가족들을 지원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설립됐으며 교육·문화 지원사업, 문화복지 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이번 콘서트는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최초의 장애인 오케스트라 단독 무대다. 추천 문의 02)430-2000

/윤재웅 기자

'파티의 여왕' 눈매가 예술

연말모임 위한 스타일 팁

크리스마스와 연말 시즌이 다가오면서 각종 파티와 모임 약속이 많아지고 있다. 이즈음 되면 여성들은 파티 장소에서 어떤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을 연출할지 고민이 된다.

◆매끄러운 피부 연출은 기본

건강한 얼굴에서 물이 떨어질 듯한 물광 메이크업이 유행이었지만 올겨울은 실크처럼 매끈한 세미매트 피부가 대세로 떠올랐다. 자연스럽게 빛이 흐르는 깨끗하고 매끄러운 피부결만 완성해도 연말 파티 메이크업의 절반은 성공이다.

◆음영 아이 메이크업 '반전매력'

파티 메이크업은 눈 화장 하나만으로도 이미지가 180도 변할 수 있다. 올 연말 파티에서는 섀도와 아이라이너를 이용한 음영 아이 메이크업으로 반전 매력에 도전해 보자.

먼저 베이지 톤의 섀도로 눈두덩과 언더라인에 선을 그리듯 바른 후 손으로 자연스럽게 블렌딩해준다. 이때 섀도는 펜슬형이 편하다.

베이스를 깔아준 후 다크브라운 컬러의 섀도우로 아이라인을 그리듯 눈꼬리를 빼서 라인을 그린다. 더욱 깊은 음영 효과를 내기 위해 언더라인에도 다크브라운 컬러의 섀도를 꼼꼼히 그려준다. 마지막으로 브라운 컬러 펜슬라이너로 아이라인을 그려주고 손으로 블렌딩해 자연스럽게 그러데이션을 만들어주면 깊은 눈매가 연출된다.

◆TPO 갖춘 헤어스타일 '센스'

성숙한 분위기의 연말 파티에는 올림머리를 추천한다. 쇄골과 목선이 드러나 여성미를 강조할 수 있다.

신나는 클럽의 연말 파티에 참석할 때는 스트레이트 헤어가 제격이다. 춤을 출 때 찰랑거리는 헤어의 느낌이 매력적이다.

/채윤도 기자 ymg@metroseoul.co.kr

테트라팩 편의성 인증 추가

세계적인 식음료 전처리 및 무균 포장기술 선도기업 테트라팩(www.tetrapak.com)은 17일 자사 패키지 5종이 스웨덴류마티스협회(SRA)로부터 사용 편의성 인증을 추가 획득해 총 10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인증받은 헬리캡 마개는 위조 방지 링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뛰어난 그립감을 자랑한다. 드림캡 마개는 이동 중에도 음료를 음용할 수 있도록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됐다.

서울의료원 독감백신 접종

서울의료원이 지난 16일 강남 분원에서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을 시행했다.

무료 접종은 농수산식품공사에서 선정한 200여 명의 영세 유통인, 고령의 상인, 외국인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무료 접종과 함께 병원 예방접종팀의 전문적인 건강 상담도 이뤄졌다. 또 서울의료원은 무료 접종에 앞서 농수산식품공사, 가락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 포괄적인 의료 지원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휴대용 샷 분석기 '스윙캐디'

(주)유컴테크놀러지(대표 김준모·www.ucommtech.com)는 최근 국내 최초로 휴대형 스윙분석기 '스윙캐디'를 출시했다. 이 제품은 연습 시 클럽별 비거리·볼 스피드·스윙 스피드·반발 계수·총 타수 등 골프연습장에서 꼭 필요한 샷 정보를 보여준다. 가격은 29만5000원이며 기타 사항은 홈페이지(www.voicecaddie.com)나 콜센터(1577-2862)로 문의하면 된다.

산들 통배고 30~40% 할인

산들건강(www.sandle.co.kr)의 산들 통배고는 가을철 호흡기질환에 도움이 되는 산들 통배고를 판매 중이다. 이 제품은 배·도라지·은행·대추·생강·수세미·홍도라지·산삼배양근 등을 넣어 비 즉으로 4일 이상 달여 만든 건강식품이다. 제품 출시를 기념해 최대 30~40% 파격가(15만원부터)에 판매 중이다.

문의 02)778-4568, 070)4265-5000

'이대병원 간센터' 특화암센터 부문 최고

'2013 메디컬코리아 대상'서 해당부문 최고점 획득 영예

이대목동병원은 병원 간센터가 최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2013 메디컬코리아 대상' 시상식에서 특화암센터 부문 최고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한국경제TV·한경닷컴과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메디컬코리아 대상은 전문 치료센터 및 진료 과목별 최우수 병·의원과 제약 산업 선진화를 이끈 글로벌 제약사 및 의료기기 업체 등을 선정하는 상으로 간센터는 특화암센터 부문 종합 평가지수 비교 분석을 통해 최고점을 획득했다.

현재 간센터는 간암뿐 아니라 급성·만성 간염과 간경변증, 간이식에 이르기까지 간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있으며 올해 4월 생체 간이식을 시작으로 11월까지 7건의 간이식 수술에 성공한 바 있다.

유권 센터장은 "간이식을 비롯한 장기이식은 고도의 의료 시술로 해당 진료과의 의료 수준이 높아야 할 뿐 아니라 진료과 간의 유기적인 요소가 필수적"이라며 "간센터가 국내 최고 수준의 통합 의료 시스템으로 의료계를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재웅 기자

씩씩한 자기소개 '얼짱효과'

장윤희 기자의 투잡 체험기

스피치트레이닝 ⑤

자기소개는 자주 하면서도 늘 어려운 분야다.

연말연시 각종 모임에서 자신을 호감 있게 드러내는 일은 사회인의 경쟁력이자 숙명이다. W스피치 도움을 받아 수강생들과 함께 매력 만점 자기소개법을 연습해봤다.

성공적인 자기소개는 인사에서 시작한다. 첫인상은 3초 이내에 결정되는 만큼 인사는 큰 목소리로 활기차게 해야 한다. 긍정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이미지를 주면 자기소개 첫 단추는 성공적으로 여며진 셈이다. 속은 떨리더라도 씩씩하게 나가야 한다. 청중들은 의외로 말의 내용이 아닌 말하는 태도를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다음으로 이름을 각인시켜야 한다. 우리나라 이름은 비슷비슷한 경우가 많아 헷갈리기 쉽다. 자신의 이름 뜻풀이와 작명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면 상대방에게 각인시키기가 용이하다.

예를 들어 "우리 집은 돌림자를 엄격히 준수해왔는데 아버지께서 종친들과 다투시면서까지 내 이름은 세련된 한글로 지으셨다" "내 이름은 '배진'인데 사람들은 '배진'으로 기억한다. 어릴 때는 독특한 이름이 불편했는데 지금은 만족한다. 배다(ship)처럼 포용하며 살겠다"는 식이다. 기자의 경우 "이름을 장윤희라고 소개해도 장윤정으로 부르는 분들이 많더라. 우리 집은 가족끼리 사이 좋다"고 말해 수강생들을 웃음 짓게 했다. 이름이 윤정으로 잘못 불리는 사연, 가수 장윤정의 가정 소의 뉴스 등을 섞어서 재치있게 표현해봤다.

자기소개를 외우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가장 좋은 방법은 키워드만 생각하는 것이다. 가령 "이 학교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유전공학센터가 있고 산학 협력이 잘 돼 있기 때문입니다"에서 '유전공학센터' '산학협력'만 기억해 두는 것이다. 문장을 통째로 암기하지 않고 단어만 알아두면 구술 책듯 매끄럽게 자기소개를 할 수 있다.

다음 회에서는 설득력 있는 말하기를 소개한다. /Junhee@

꿈은 2622 현실은 2170

<희망 연봉> <실제 연봉>

숫자로 보는 '2013 취업 이슈'

구직자 평균 빚 1564만원
스펙 갖추려 15개월 투자
30세 안넘는 입사자 선호

2622만원을 연봉으로 받고 싶지만 빚만 1564만원이어서 하루 3번씩 화가 난다.

메트로신문이 취업포털 사람인과 함께 올 한 해 취업 시장 이슈를 주요 숫자로 알아본 결과다. 취업 마지노선이 남성 31세, 여성 29세로 낮아진 데다 구직자들의 스펙 만족도는 41점에 불과해 취업준비생들이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한 해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3=하루 평균 울컥하는 횟수

구직자 525명을 대상으로 '구직 생활 중 화가 나는 순간이 있습니까'를 물은 결과 92%가 '있다'고 답했다. 빈도는 하루 평균 3번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화가 나는 순간으로는 '서류 전형에서 탈락했을 때'(30.2%, 복수 응답)와 '탈락 통보도 받지 못했을 때'(29%)가 1, 2위를 차지했다.

화병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는 '우울함 또는 자괴감을 느꼈다'(48%)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

◆28 & 26=신입 채용 마지노선

기업 인사담당자 5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신입사원의 적정 연령은 남자는 만 28세, 여자는 만 26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 인사담당자의 34%는 만 30세 이상의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밝혔고 만 30세가 넘으면 탈락시키거나 감점한다는 응답도 24.9%나 됐다.

신입사원 입사 연령의 마지노선을 두는 이유로는 '기존 직원들이 불편해 하기 때문'이라는 대답이 51.9%로 가장 많았다.

◆41=스펙 만족도

구직자 575명을 대상으로 스펙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평균 41점에 불과했다. 특히 자신의 스펙에 대해 '취업하기 부족한 편'(69.9%)이라는 응답이 '충분한 편'(11.7%)이라는 비율보다 6배나 많았다.

부족하다고 느끼는 스펙으로는 '토익 등 공인영어성적'(64.4%, 복수 응답), '영어회화 능력'(55.7%), '자격증'(43.5%), '어학연수 등 해외 경험'(33.1%), '학벌'(32.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직자들은 만족하는 스펙을 갖추기 위해 평균 15개월 동안 198만원을 투자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1564=대학 졸업 예정자 1인당 빚

20~30대 성인 남녀 177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 진출 전 빚진 경험 설문조사 결과 39.1%가 '있다'고 답했다. 빚진 금액은 1인당 평균 1564만원으로 집계됐다.

빚의 원인으로는 '학자금대출 등 학업 관련비가 원인'이란 답변이 77.1%로 압도적이었다. 취업 준비(5.9%), 식비 등 각종 생활비(4.9%), 주거 비용(2.3%) 등이 뒤를 이었다.

◆2622 & 2170=구직자 희망 연봉과 실제 연봉

구직자(658명)와 기업(186개사)을 대상으로 희망 연봉과 신입사원 연봉에 대해 조사한 결과 그 차이는 평균 452만원에 달했다. 구직자들의 희망 연봉은 고졸(2398만원), 초대졸(2455만원), 4년제 대졸(2716만원), 대학원 이상(2980만원) 순으로 평균 2622만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기업들이 신입사원에게 주는 연봉은 평균 2170만원에 불과했다.

/박국희기자 kmlee@metroseoul.co.kr

'인생 이모작' 터 잡을 곳은… 17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중소기업DMC 타워에서 열린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채용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받고싶은 성탄선물 '현금'이 최고

직장인이 가장 받고 싶은 크리스마스 선물은 '현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남녀 직장인 700명을 대상으로 '크리스마스 계획'에 대해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설문에 따르면 직장인들이 가장 받고 싶은 크리스마스 선물은 '현금'으로 남자 응답자의 43.8%, 여자 응답자의 32.4% 지지를 받았다. 2위는 남성의 경우 '상품권'(24.0%)이었으며 여성은 '액세서리'(24.5%)를 선택했다. 이어 남성은 '전자제품'(21.9%)을, 여성은 '상품권'(23.3%)을 3위로 거론했다.

크리스마스에 가장 받기 싫은 선물 1위는 '꽃다발'이었다. 남녀 직장인의 각각 36.2%와 27.1%가 꽃다발을 기피 선물로 꼽았다. 이어 남성은 '크리스마스카드'(31.4%)를, 여성들은 '쿠키 등 먹을거리'(21.8%)를 받기 싫다고 답했다.

한편 직장인들의 이번 크리스마스 선물 구입 비용은 평균 10만9000원으로 집계됐다. /황용희기자

'민속촌 각설이'를 부러워한 알바인생들

꿀알바·알바생 시리즈·알바노조…

아르바이트 전문 구인 구직 포털 알바몬은 올 한 해 '아르바이트 핫 키워드'를 이같이 선정해 17일 발표했다.

◆꿀 알바 vs 지옥 알바

아르바이트의 난이도 또는 보수에 따라 희비가 갈리는 꿀 알바와 지옥 알바 시리즈가 화제를 모았다.

'사무보조 알바' '재택 알바'는 물론 한국민속촌 페이스북을 통해 소개된 '민속촌 거지 알바'도 '꿀 알바'로 부러움을 샀다. 반면 여름에는 땀나는 '인형탈 알바', 겨울에는 칼바람 속을 달리는 '오토바이 배달 알바'가 최악의 알바로 꼽혔다.

◆공감 대박 '알바생' 시리즈

네이버 등 포털 검색어 상위권을 오르내린 각종 '알바생 시리즈'도 알바생들의 공감을 자아냈다. '알바생이 꼽은 흔한 PC방 손님 유형' '알바생이 두려워하는 얘기' '알바생이 절망한 상황' '알바생의 패기' '알바생이 꼽은 최악의 손님' '흔한 편의점 알바생' 등이 네티즌들의 큰 지지를 받았다.

◆알바생들의 조직화 '알바노조'

알바생들의 권익 대변을 기치로 내건 알바연대가 지난 8월 7일 공식 출범했다. 알바노조는 출범 이후 기본 소득 아카데미 강좌 진행,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단체 협약, 알바인권 선언 등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하며 알바생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아르바이트 피싱

알바 구직자를 노리는 피싱도 활개를 쳤다. 사내 출입증에 필요하다며 주민등록번호·통장번호·비밀번호·통장 실물·현금카드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가 하면 아예 취업을 시킨 뒤 보이스 피싱을 통해 얻은 불법적인 수익을 빼돌리는 인출책으로 사용하는 등의 불법적인 업무를 시키는 곳도 있었다.

◆모바일 구직 시대

알바 구직 시장이 모바일로 영역을 확장됐다. 알바몬 및 잡알바 앱을 비롯해 주요 알바 사이트에서 관련 앱을 쏟아내면서 알바 채용정보 열람·지원 등의 전 과정이 모바일만으로 가능해졌다.

/이국명기자

드라마 '상속자들'로 스타 반열 오른 김우빈

돌직구 날리는 못된 영도 인기 상상도 못했죠

SBS '상속자들'과 영화 '친구2'의 쌍끌이 흥행으로 '대세남'으로 뜬 김우빈(24)은 지금의 높은 인기가 얼떨떨한 듯했다. 대세남이 된 소감을 묻는 질문에 극중에서 보여준 반항아 캐릭터와 달리 모범생 같은 표정과 말투로 "천천히 실력을 다져서 준비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랑을 받아 당황스럽고 감사하다.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 같다"며 쑥스러워했다.

강하면서 능청스러운 매력

지금의 인기를 얻기까지 2~3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모델 출신인 김우빈은 2011년 KBS2 드라마 '화이트 크리스마스'로 연기에 입문한 후 지난해 전파를 탄 SBS '신사의 품격'과 올해 초 종영한 KBS2 '학교 2013'을 통해 이름을 알렸고, '친구2'와 '상속자들'로 스타 반열에 올랐다.

출연하는 작품마다 반항아 역할로 깊은 인상을 남긴 그는 '상속자들'에서 김탄(이민호)과 사랑하는 은상(박신혜)을 짝사랑하는 고교생 영도를 연기하며 강하면서도 능청스러운 캐릭터로 매력을 발산했다. "뭘 더 어떻게 해" "눈 그렇게 뜨지 마, 설레" 등 영도의 돌직구 대사는 여심을 흔들었다.

"드라마 시작 전까지만 해도 못된 캐릭터라서 인기를 얻을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아마 누구나 짝사랑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영도를 좋아해준 게 아닐까요? 비록 은상과는 사랑이 이뤄지지 못했지만 서운하지 않아요. 시청자들의 사랑만으로 감사해요. 욕심내지 않을래요."

그는 "전작들에 이어 또 비슷한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을까봐 색다른 반항아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다"며 웃었다.

요즘 20대 남자 배우들에게서는 보기 드문 강렬한 외모가 반항아 역에 더없이 잘 어울린다.

"소속사 사장님 안목이 상당한 편인데 저에게는 이 시대에 통할 얼굴은 아니라고 했었어요. 영화 '트와일라잇'의 뱀파이어 같은 느낌이래요. 저도 사장님의 말에 공감해 앞으로 2~3년 더 연기를 다지고 서른 살 전에 이름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인기를 얻어서 저도 사장님도 당황했답니다."(웃음)

나름의 콤플렉스가 있다는 그는 "말하면 더 그 부분만 집중해서 볼까봐 차마 말을 못 하겠다"고 수줍게 말하면서 "'상속자들' 때 보는 분들이 거부감이 들까봐 머리카락을 올려야 하나 내려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다. 영도를 지키려면 올려야 하는데 여성 팬들의 마음을 지키려면 내려야 했다"고 후반에 달라진 머리 스타일을 설명하기도 했다.

상속자들

친구2

스무살때 모델로 연예계 입문
수입 없어서 6개월간 물배 채워
반항아? 실제론 모범생인걸요

가족애 느끼는 작품 하고파

실제로는 반항아 같은 구석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다. 중학교 때는 전교 5등까지 했고, 크게 부모 속을 썩인 적도 없다. 모델을 한 것도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서 시작했다. 만약 부모가 반대했다면 평범하게 살았을 거라는 효자다. 최근 '몸값'이 치솟았지만 금전 관리도 부모에게 맡기고 있다.

"모델 일을 시작할 즈음인 스무 살 때에는 수입이 별로 없었어요. 부모님에게 손을 벌리고 싶지 않아 찜질방에서 6개월간 물배를 채우면서 생활했었죠. 전에는 아버지에게 용돈 달라고 말하기 미안했는데, 지금은 당당하게 말하고 있어요. 아직은 돈 쓸 곳이 많지 않아 옷 사는 정도지만 이제는 친구들에게 술을 많이 사야 할 것 같아요."(웃음)

말을 할 때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정교육을 잘 받고 자란 청년의 이미지를 물씬 풍기는 그는 다음에는 가족영화를 해보는 게 소망이다. "윌 스미스가 주연한 '행복을 찾아서'를 휴지로 입을 막고 오열하면서 봤죠. 이 영화처럼 진한 가족애를 느낄 수 있는 작품을 해보고 싶어요."

/박진영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사진/[illegible] 디자인/[illegible]

star bag

큐브 가수·류현진 음악선행

미국프로야구 LA 다저스의 **류현진**이 포미닛 **비스트 지나** 등 큐브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들과 함께 음악으로 선행한다.

이들은 총 2곡의 음원을 공개해 수익 전액을 시각장애인 재활을 돕는 재단에 기부할 계획이다. 20일 출시될 첫 곡 '스마일 어게인'은 현아 현승 지나와 류현진이 함께한 댄스곡이다.

신나는 하우스 비트에 밝고 달콤한 멜로디가 더해져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곡이다.

SM루키즈 3명 추가 공개

SM엔터테인먼트의 예비 스타 브랜드 SM루키즈가 17일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지성 마크 한솔** 등 3명의 신인을 추가로 공개했다.

이들은 춤에 탁월한 재능을 지녔으며, 세계적인 안무가인 토니 테스타로부터 춤 수업을 받는 영상은 네티즌들의 눈길을 끌었다. 토니 테스타는 여덟 살 때부터 춤을 췄다는 지성에게 "나도 같은 나이에 춤을 추기 시작했는데 실력을 보니 앞으로가 더욱 기대된다"고 칭찬했다.

'디셈버' 첫 공연서 기립박수

김준수가 16일 창작 뮤지컬 '디셈버: 끝나지 않은 노래'의 첫 무대에 올라 3000여 명의 관객에게 기립박수를 받았다.

고 김광석의 음악을 소재로 한 이번 작품에서 첫사랑을 잊지 못하며 그리움을 안고 사는 지욱 역을 연기한 김준수는 다양한 이미지로 관객을 사로잡았다. 그는 김광석의 대표곡을 부른 스페셜 앨범을 18일 온·오프라인에 출시한다.

'소-러브드 어워즈' 3관왕

그룹 B.A.P가 유럽에서 최고의 K-팝 스타로 인정받았다.

올해 4회째를 맞은 '소-러브드 어워즈'에서 B.A.P는 '베스트 남자 그룹상'을 받은 것은 물론 두 번째 미니앨범 '원 샷'으로 '뮤직비디오상'과 '남자 안무상'을 수상했다. 총 18개 부문 중에서 이들은 최다인 3개 부문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이다해 "성매매 루머 못참아"

첫 유포자 고소…신지·솔비 등도 강경 대응

경찰이 여성 연예인들의 성매매 의혹을 수사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후 후폭풍이 거세다.

검찰 수사 리스트에 올랐다는 10여 명의 실명이 거론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증권가 정보지(찌라시)가 나돌면서 이다해·조예영·신지·솔비·황수정·장미인애·김사랑·성현아·권민중 등 관련 연예인들이 줄줄이 피해를 호소하며 경찰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특히 관련 연예인들은 민감한 일에 사실 유무와 상관없이 쉬쉬했던 예전과 달리 일제히 유포자를 찾아달라며 신속하게 강경 대응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최근 스마트폰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발달로 정보가 빠르게 퍼지면서 더 이상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다해 측 법무팀은 17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연예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악성 루머를 감내했지만 최근에는 심각성이 더해져 직접적인 실명이 거론되는 등 그로 인한 피해 규모가 날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근거 없는 소문이 기정사실화되는 과정을 방지하고자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신지의 소속사는 "신지가 연예인을 떠나 한 여성으로서 참을 수 없는 참담함과 수치심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고, 솔비도 소속사를 통해 "2009년에도 근거 없는 동영상 루머로 큰 상처를 입어 정신적인 충격과 상처 때문에 우울증에 시달리며 결국 방송 활동을 중단한 적이 있다. 또다시 불거진 악성 루머 앞에 심한 상실감이 들었지만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반복되는 걸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경한 의지를 드러냈다.

최근 프로포폴 불법 투여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장미인애도 억울함을 호소했다. 변론대리인 법무법인 도연은 "최근 다른 불미스러운 사건 때문에 악성 루머 등을 감내하고 자중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으로서 최소한의 자존심에 관련되는 성매매와 관련된 근거 없는 소문이 더 퍼지게 되는 점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찌라시에서 성매매 사건의 브로커로 지목된 조예영도 전날 밤 불쾌함을 드러냈으며 황수정도 미관기지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사건과 관련해 금전 거래와 성매매 장소의 주변인 조사를 통해 증거를 찾고 있는 검찰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 어떤 것도 말해줄 수 없다"면서 "다만 확대해석을 막기 위해 조속히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현민기자 gold427@metroseoul.co.kr

황제인 성매매와 관련한 루머에 시달리며 강경대응 입장을 밝힌 솔비·김사랑·장미인애·이다해(왼쪽부터)

소녀시대 오리콘 주간차트도 톱

한국 걸그룹 최초 2회

국민 걸그룹 소녀시대(사진)가 일본에서 새로운 기록을 추가했다.

11일 현지에서 출시한 소녀시대 앨범 정규 3집 '러브&피스'는 발매 당일 오리콘 앨범 일간차트 1위에 오른 데 이어 발매 첫 주 12만9255장의 판매량을 기록하며 주간차트에서도 정상을 차지했다.

소녀시대의 오리콘 앨범 주간차트 1위는 2011년 6월 발매된 정규 1집 '걸스 제너레이션' 에 이어 통산 두 번째다. 이로써 소녀시대는 한국 여성그룹 사상 최다인 앨범 주간차트 2회 1위 기록을 세웠다.

소녀시대는 이번 앨범 출시를 기념해 14일 요코하마 아레나와 15일 오사카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에서 이벤트를 열어 각각 3만 명과 2만 명을 동원했다. 이들은 '러브&피스'를 비롯해 '마이 오 마이' '갤럭시 수퍼노바' 등 새 앨범 수록곡과 히트곡 등 8곡을 라이브로 선사했다.

또 소녀시대는 내년 4월부터 후쿠오카·히로시마·고베·니고야·오사카·도쿄 등에서 일본 세 번째 아레나 투어도 펼칠 계획이어서 현지 팬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소녀시대는 22일 일산 킨텍스에서 연말 단독 콘서트 '메르헨 판타지'를 개최한다.

/유순호기자 suno@

'상속자들' 끝나도 이민호 앓이

극중 의상 온라인 자선경매 1초당 1만명 몰려 서버 다운 싱가포르 방문엔 팬 2000명

SBS 드라마 '상속자들'이 끝났지만 '이민호 앓이'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상속자들'의 이민호(사진)가 김탄을 연기하며 입었던 의상을 온라인 자선경매에 내놓자마자 접속자가 폭주해 진행이 중단됐다. 14~22일 총 세 차례에 걸쳐 '어 브레즌트 프롬 타니'라는 이름으로 경매가 열리는 가운데 16일에는 10벌의 옷이 올라왔다.

소속사에 따르면 한국은 물론 중국·일본·대만 팬들의 접속이 잔중적으로 이뤄졌고 미국·말레이시아·싱가포르·인도네시아 등에서도 많은 팬이 접속했다. 1초당 1만 명 이상이 몰리자 결국 사이트 관리자는 진행을 중단하고 19일 오전 9시에 다시 시작한다고 공지했다.

이번 행사는 이민호의 제안으로 시작됐으며, 판매 수익금 전액은 불우이웃 돕기 기금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이민호의 인기는 해외에도 실시간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는 자신이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화장품 브랜드 프로모션을 위해 16일 싱가포르를 방문했고, 창이공항에는 2000여 명의 팬들이 몰려 뜨겁게 환영했다고 소속사는 전했다.

소속사 관계자는 "2010년 방문했을 당시에도 수천 명이 몰려 행사가 취소되기도 했었다. 이번 방문에서 과거의 인기를 넘어서는 환호에 현지 관계자들도 상상을 초월하는 인기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전했다.

이민호는 다음달 18일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콘서트를 열고 휴식을 취한 후 유하 감독의 영화 '강남블루스' 촬영을 시작한다.

/유순호기자

tvN 월화드라마

로맨스가 필요해3

너를 만나,
다시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매주 **월,화** 밤 9시 40분 **tvN** 방송 / 2014년 1월 13일 첫방송

김소연 | 성준 | 남궁민 | 왕지원

tvN | JSpictures

찬열 "오지체험… 민낯공개 걱정"

정글의 법칙 제작발표회

임시완 "예지원 누나 부탁으로 누룩 가져갔다 마약 사범 오해받아"

인기 꽃미남 아이돌인 엑소의 찬열과 제국의 아이들 임시완이 오지 체험에 나선다.

이들은 20일부터 전파를 탈 SBS '정글의 법칙 인 미크로네시아'에 기존 멤버인 김병만·류담·박정철·오종혁 등과 함께 출연한다.

미크로네시아 편은 필리핀 서태평양에 있는 연방 공화국 미크로네시아로 떠난 병만족의 11번째 여행기로, 찬열·임시완과 함께 예지원·임원희도 새롭게 합류했다.

17일 서울 목동 SBS 사옥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찬열은 "멤버들과 떨어져 혼자 예능을 찍는 게 처음이라 걱정이 많았다. 그중에서도 민낯을 공개해야 한다는 게 가장 큰 걱정이라 온갖 화장품은 다 가지고 갔다"면서 "그러나 정글에 들어가니 화장이 불가능했다. 화장을 포기했을 때부터 정글에 적응했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17일 SBS '정글의 법칙 인 미크로네시아' 제작발표회에 참여한 찬열·예지원·임시완(왼쪽부터) /SBS 제공

소속사에 먼저 출연하고 싶다고 적극적으로 말했다는 임시완은 "일정이 있어 후발대로 참여했다. 그런데 예지원 누나의 부탁으로 누룩을 가지고 갔다가 현지 공항 검열대에서 영어가 통하지 않아 마약 사범으로 오해받는 억울한 일이 있었다. 우여곡절 끝에 선발대를 만났지만 지금 생각하면 아찔하다"고 에피소드를 털어놨다.

임시완의 말에 예지원은 미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면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는데 진짜로 가져올 줄은 몰랐다. 덕분에 정글에서 누룩으로 훌륭한 코코넛 막걸리를 완성했다"고 특유의 4차원적인 매력을 뽐냈다.

/탁진현기자 tak0427@metroseoul.co.kr

박진영 콘서트 예매율↑ "히든싱어 출연 덕봤네"

가수 박진영(사진)이 JTBC '히든싱어' 역대 최고 시청률을 갈아치우자 팬들의 관심이 콘서트로 집중되고 있다.

박진영의 콘서트를 기획한 CJ E&M 측은 "'히든싱어' 방송 후 주말 사이 콘서트 예매율이 급상승하며 콘서트 순위가 10위권으로 진입했다"고 밝혔다. 또 '날 떠나지마' '허니' '엘리베이터' '너의 뒤에서' 등 19년 동안 박진영이 내놓은 히트곡들이 재조명되며 그의 연말 공연이 '보는 콘서트'에서 '듣고 싶은 콘서트'로 새롭게 평가받고 있다.

박진영은 소속사를 통해 "콘서트를 준비하면서도 한 곡 한 곡 모두가 새롭게 다가온다. 내 노래를 사랑해준 모창 능력자들처럼 내 공연을 찾아주는 팬들의 마음을 생각하니 뜨거워진다"고 감회를 전했다.

'2013 나쁜파티-더 하프타임쇼'는 19~22일 올림픽공원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개최된다.

/유순호기자 suno@

올해의 베스트 드레서 클라라 등 14명 뽑혔다

배우 정우성·고준희·여진구·클라라(사진) 등이 올해의 베스트 드레서로 선정됐다.

한국패션협회와 패션모델 전문기업 모델라인은 올해의 '코리아 베스트 드레서 스완 어워드' 수상자로 총 14명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정우성과 고준희는 배우 부문, 안술옹과 가인은 가수 부문의 수상자로 결정됐다.

라이징 스타 부문 수상자 명단에는 여진구와 클라라가 이름을 올렸다.

이 밖에 모델 부문에서는 김원중과 장수임, 문예 부문에서는 영화인 김동호와 발레리나 김주원, 경제 부문에서는 김삼대 엔터식스 대표, 정치 부문에서는 송호창 의원과 이자스민 의원이 베스트 드레서로 뽑혔다.

모델라인이 선정하는 '백조상'은 중국 패션회사 정엔삼그룹의 전종위 사장이 받았다.

올해로 28회째를 맞은 이 행사는 한 해 동안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생활 속의 패션 문화를 선보인 각계각층의 인사를 선정해 시상한다.

올해 시상식은 19일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다.

/탁진현기자

"첫 키스신 어색하고 설레"

드라마 '스무살' 이기광 이다인과 호흡 맞춰

인기 아이돌그룹 비스트의 이기광과 신인 배우 이다인이 첫 키스신을 찍으며 떨렸던 감정을 털어놨다.

17일 서울 여의도 CGV에서 열린 tvN 새 드라마 '스무살'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이기광은 "키스신이 처음이라 어색했고 떨렸다. 생각보다 너무 자극적으로 나오지 않았나 하는 걱정이 앞선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걱정이 된다는 이기광과 달리 이다인은 "촬영 전에는 긴장을 많이 하고 떨었지만 막상 촬영에 들어간 후에는 NG 없이 수월하게 잘 찍었다"면서 "이기광이 편하게 대해줬다"고 담담하게 말해 눈길을 끌었다.

연기자 견미리의 둘째이자 이유비의 동생으로 이 드라마를 통해 연기자로 데뷔하게 된 그는 특히 "가족이 조언보다는 격려와 응원을 해준다"면서 "한번에 스타가 되기보다는 연기력으로 인정받는 배우가 되는 것이 목표"라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17일 tvN '스무살'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이다인과 이기광 /뉴시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각자 실제 첫 키스 경험도 털어놨다. 이기광은 "어리숙할 때 해서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느낌만 생각난다"고 말했고, 이다인은 "집에 가서 계속 종일 침대 위에서 방방 뛸 정도로 설렜다"고 이야기했다.

'스무살'은 백림(이다인)과 어느 날 그녀 앞에 나타난 중학교 동창이자 아이돌 스타 비스트의 멤버 기광(이기광), 스무 살 두 남녀의 비밀 연애담을 담은 4부작 UHD 드라마다.

/탁진현기자

'아빠 어디가' 시즌2 내년 방송

MBC '일밤-아빠! 어디가?'(사진)가 시즌 1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 시즌 2에 들어간다.

17일 MBC 관계자에 따르면 멤버들은 14~15일 제주도 한라산에서 마지막 촬영을 진행했다. 시즌 2는 새로운 구성으로 내년 1월 방영될 예정이다.

이종혁은 이날 방송된 SBS 파워FM '두시 탈출 컬투쇼'에서 "몇 번 여행을 갔는지는 세보지 않았다. 하지만 스물 몇 번 정도 간 것 같다. 최근 마지막 여행을 다녀왔다"고 밝히기도 했다.

시즌 1을 마무리한 제작진은 시즌 2 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제작진은 시즌 1의 멤버 일부 교체와 멤버 전원 교체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캐스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1월 첫 방송된 이 프로그램은 성동일·이종혁·김성주·윤민수·송종국 등 다섯 명의 스타들이 자녀들과 1박2일로 시골 오지마을로 여행을 떠난다는 내용으로, 아이들의 순수한 동심을 보여주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탁진현기자

책에도 흥행비법 있다?

세계적 히트 서적들 분석 공통된 코드 12가지 제시 필수조건은 "작가의 열정"

1년 동안 국내에서 나오는 신간 수는 대략 4만여 종이지만 이 가운데 베스트셀러는 극소수다. 수백, 수천만 부가 판매된 초대형 베스트셀러는 하늘이 내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대박 책을 만들기란 쉽지 않다. 어떤 책은 대형 출판사의 최상 마케팅 지원을 등에 업고서도 고전을 면치 못하는 반면 별 기대 없이 출간됐다가 입소문이나 유명인의 추천 덕분에 갑자기 대박을 터트리는 경우도 있다.

베스트셀러가 되는 책에는 특별한 공식이 있는 것일까.

미국 플로리다국제대학에서 36년간 문학과 글쓰기를 가르쳐온 저자가 '앵무새 죽이기'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 '다빈치 코드' 등 초대형 베스트셀러 12권을 분석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흥행 요인 12가지를 제시했다.

베스트셀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제임스 홀/위너스북

캐릭터에 대한 연민과 공포를 자아내는 설정, 출간 당시 뜨겁고 논쟁이 분분했던 소재, 웅장한 스케일 속의 소소한 이야기, 신문가 못 지않은 지식과 정보, 전통적인 신앙과 종교 관습 비판, 온전치 못한 가정사, 이단아 기질이 충만한 주인공 등이 대표적이다.

저자는 "12권은 모두 감상적인 문장으로 가득찬 매혹적"이라며 "특히 전개가 빠르고 감정적이며 비슷한 캐릭터가 등장하고 무엇보다 재미있어서 책장이 술술 넘어간다"고 설명했다.

저자는 분석에만 그치지 않고 이 흥행 코드를 적용한 책 17권을 직접 써서 베스트셀러로 만들었고, 그의 제자들 중에서도 여러 명이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다.

하지만 저자는 흥행 코드는 필요조건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작가의 열정이며 작가 자신을 울리지 못하는 작품은 결코 독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박지원기자

새로 나온 책

아세아

녹색 고전

김욱동/새봄

갈수록 척박해지고 오염되는 땅에 살아가는 현재 우리의 앞으로 살아갈 미래 세대의 역사나 역사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고전을 생태적 관점에서 재해석해 깊고 넓은 환경 친화적인 지혜를 선사주는 동시에 고전을 더욱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메시지를 제시하고 있다.

건강

가족의 몸을 살리는 30일 건강 습관

KBS 생로병사의 비밀 제작팀/애플북스

이 책은 복부비만, 당뇨, 고혈압 등 생활습관병을 가진 네 가족을 선정해 30일 여리는 시간동안 올바른 습관이 생활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솔루션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했을 때 가족의 건강 상태가 얼마나 개선될 수 있을지를 보여준다.

소설

러브 바이 나이트: 밤에 살다

데니스 루헤인/황금가지

인종 차별과 금수법 단속, 밀주 거래, 조직 폭력 등 범죄 거리를 무대로 펼쳐지는 어둠의 세계와 사건들이 우아하면서 정교하게 그려진다. 특히 등장인물의 내면을 파고드는 심리 묘사와 반전이 색다른 매력으로 다가온다.

인문

사모님 우울증

김병수/문학동네

정신과 전문의인 저자는 임상 경험을 토대로 생생한 사모님들의 사연을 들려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겪고 있는 상황을 그림으로 설명하고 그림으로 위로한다. 이를 통한 심리처방은 한 마디의 말보다 마음에 더 와 닿으며 위로를 준다.

예술

마에스트로의 리허설

볼 서커스/마르코스

책은 오케스트라를 이끌어가는 지휘자가 연주자들과 함께 소리를 빚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 지휘자는 무엇을 하는가'라는 가장 단순하고도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에 대한 궁금증을 해부하며 현역 최고의 지휘자 6인을 면밀하게 관찰해 지휘자의 모든 것을 파헤친다.

청소년

세상을 바꾼 예술 작품들 1·2

한순수 어윤리/고래가 그랬어

베토벤의 음악, 벤엔시의 그래피티, 살가도의 사진 등 시대의 배경이 다른 20개의 예술 작품들을 모았다. 타임머신을 타고 예술가들이 살던 시대로 날아간 주인공들을 통해 예술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때로는 아파하는 공감의 기록들을 만화 형식을 통해 전달하고 있다.

자기계발

정리의 정석

조서윤/초록물고기

규칙적으로 하는 동작적인 순서와 방법을 루틴(routine)이라고 한다. 저자는 정리를 핵심적인 일로 여기지 않고 미루기만 하는 현대인은 그 효과를 체험해보지 않았거나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이 책을 통해 정리·정돈만 잘해도 생활의 활력을 얻고 일도 잘 풀린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

여행

서울에서 할 수 있는 987가지

최은조/BR미디어

명실공히 글로벌한 대도시로 자리잡은 서울을 즐길 수 있는 무궁무진함이 담겨 있다. 서울 곳곳의 모습은 물론 서울 맛집, 서울에서 한 번은 해봐야 하는 일들도 소개된다. 어디를 펼치든 그곳에서 서울 여행을 시작할 수 있다.

'항상 취하라.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절실한 것은 없다. 시간의 끔찍한 중압이 네 어깨를 짓누르면서 너를 이 지상으로 꿇어지게 하는 것을 느끼지 않으려거든 끊임없이 취하라. 무엇으로 취할 것인가. 술로, 시로, 사랑으로, 구원으로, 덕으로, 네가 원하는 어떤 것으로든 좋다. 다만 끊임없이 취하라.' —'눈물이 마려워'(윤선희/북노마드) 중 -

/황재호기자

미운 두살 첫 성장통…"엄마, 당황하지마"

화제의 책

처음으로 아이가 의견을 말할 때

아네테 카스트 잔/세상풍경

2~6세 유아반항기 올바른 양육법 제공

2~6세 아이들은 인생에서 처음으로 겪는 성장통을 맞이한다. 이때 아이는 원하는 것을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답답함을 엄마에게 떼를 쓰는 것으로 대신한다. 그러다 한계를 느끼면 눈물을 쏟는다. 아직 아이는 호기심, 궁금증, 분리 공포, 분노 등 대부분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조절할 수 없는 나이다. 그래서 속사포처럼 같은 말과 질문을 반복하거나 감자기 화를 내기도 한다. 이는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 시작하면서 생기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들로 이 시기를 '유아 반항기'라고 부른다.

책은 성장통을 맞아 유아 반항기를 겪는 2~6세의 아이들을 올바르게 양육하기 위한 부모 교육법을 소개한다.

심리학을 전공하고 아동심리 및 행동발달 치료 전문가이자 세 아이를 둔 엄마의 입장에서 이 시기의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아이들의 심리와 실제적인 양육법을 알려준다. 저자는 원하는 것을 말로 표현하지 못함에 따라 떼를 쓰고 울어버리는 아이들을 합리적인 교육 지침으로 일관성 있게 다뤄야 한다고 말한다. 아이가 필요로 하는 것은 모두 제공하되 원하는 것은 선별적으로 들어주는 식이다.

이와 함께 양육에 필요한 감정 코칭, 행동 코칭, 관계 코칭, 생활 습관 코칭의 실질적인 해법과 내 아이의 현재 상태와 장점을 발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

/박지원기자

■주간 e북 인기 순위

※집계 기간: 12월9~15일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장르
1	기황후	장영철 정경순	도서출판마음의숲	소설
2	기황후 1	장영철 정경순	도서출판마음의숲	소설
3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장르소설
4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종교
5	정글만리 1	조정래	해냄출판사	소설
6	[illegible]	더글라스 케네디	밝은세상	소설
7	모바일 트렌드 2014	커넥팅랩	미래의창	경제경영
8	정글만리 2	조정래	해냄출판사	소설
9	제3인류 2	베르나르 베르베르	열린책들	소설
10	제3인류 1	베르나르 베르베르	열린책들	소설

/인터파크 제공

역대 야구 연봉 인상·삭감 톱3

양학선·손연재 같은 무대

도마의 신 양학선(21·한국체대)과 리듬체조의 요정 손연재(19·연세대)가 내년에 같은 국내 무대에서 연기를 펼친다.

대한체조협회는 내년 4월 23일부터 일주일간 인천 남동경기장에서 열릴 제2회 코리아컵 국제체조대회에 양학선과 손연재가 함께 출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정윤기자

헤인즈 총 5경기 출전금지

프로농구 서울 SK 나이츠의 애런 헤인즈가 프로농구연맹(KBL)의 징계에 이어 소속팀의 자체 징계를 추가로 받았다. SK는 17일 "KBL의 2경기 출전 정지와 벌금 500만원 징계를 겸허히 수용한다. 구단은 헤인즈의 자숙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KBL 징계 이후 세 경기 추가 출전 정지를 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순호기자 suno@

프로농구 전적 17일

KCC	14	20	30	15	81
삼성	17	15	16	23	71

프로배구 전적 17일

현대건설	0	3	GS칼텍스
한국전력	2	3	우리카드

6억→2억원…김병현 '연봉 굴욕'

박명환 이어 역대 삭감 2위—강민호 4억5000만원 인상 1위

미국프로야구 무대에서 수십억원의 연봉을 받던 김병현(넥센 히어로즈)이 국내에서는 역대 연봉 삭감액 2위라는 불명예를 썼다.

올해 한국에서 두 번째 시즌을 보내며 부진했던 김병현은 17일 4억원이 삭감(-66.7%)된 2억원에 내년 시즌 연봉을 계약했다. 2004년 미국 보스턴 레드삭스와 2년간 1000만 달러에 계약하고 이듬해 657만 달러(약 70억원)의 연봉을 받았던 김병현에게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다.

지난해 계약금 10억원, 연봉 5억원, 옵션 1억원 등 총 16억원에 넥센과 계약한 그는 3승8패 평균자책점 5.66으로 부진했지만 오히려 1억원이 오른 6억원의 연봉을 받았다. 넥센과 맺은 계약 조항에 따른 것으로 보이지만 올해 5승4패, 평균자책점 5.26으로 또다시 부진하자 대폭 삭감을 피하지 못했다.

김병현은 "아직 부족한 것이 많은 것 같다. 내년 시즌 준비를 잘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다"고 짧은 소감을 전했다.

김병현보다 더 큰 삭감을 경험한 선수는 박명환(NC 다이노스)이다. 2011년 LG 트윈스와 계약하면서 4억5000만원 깎인 5000만원에 사인했다. 연봉 삭감률도 90%로 역대 1위다. 연봉 삭감의 순위 3, 4위는 2008년 3억5000만원과 2억4080만원을 각각 삭감당한 마해영과 정민태다.

역대 연봉 인상액 순위 상위권은 자유계약선수(FA)들이 차지하고 있다. 올해 롯데 자이언츠와 4년간 총액 75억원에 계약한 강민호는 올해보다 4억5000만원 인상된 10억원의 연봉을 내년부터 받는다. 지난해 FA로 넥센 히어로즈와 계약한 이택근이 4억3000만원 인상으로 2위에 올랐다. 최근 한화 이글스와 삼성 라이온즈의 계약한 FA인 이용규와 장원삼의 연봉도 각각 3억6000만원, 3억5000만원이나 오른다. /하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박지성 1년6개월 내 은퇴한다"

산소탱크 박지성(32·PSV 에인트호번·사진)이 2015년 6월에 현역에서 은퇴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성의 아버지인 박성종(54)씨는 16일 종합편성채널 JTBC와의 인터뷰에서 박지성의 은퇴 시기와 관련해 "재계약은 없다. 최대한 1년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며 은퇴를 시사했다.

이에 따라 에인트호번으로 1년간 임대된 박지성은 원소속팀인 퀸스파크레인저스(QPR·잉글랜드)와 계약이 만료되는 2015년 6월에 현역에서 은퇴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또 박지성의 대표팀 복귀에 대해서도 "현재 대표팀 선수 구성이 좋아서 뒤에서 응원만 해도 되겠다는 게 박지성의 의지"라고 말했다.

현역 연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더 뛰라고 해도 (박)지성이의 생각이 너무 확고하다. 절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박지성과 현재 교제 중인 김민지(28) SBS 아나운서와의 결혼에 관해서는 "결혼식은 내년 5월이나 6월 다음 시즌이 시작될 때로 예정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날짜를 정하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경매 나온 루스 예고 홈런볼

미국프로야구 홈런왕 베이브 루스의 예고 홈런볼이 경매시장에 나왔다. 경매는 21일부터 내년 2월 7일까지 진행된다.

부르고뉴와 코트도르

조민호의 와인스토리

피노누아 와인의 메카는 누가 뭐래도 프랑스의 부르고뉴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로마네 콩티 와인이 생산되는 코트도르(황금의 언덕)는 부르고뉴의 심장부다.

전 세계 최고 와인으로 평가받는 비결은 부르고뉴의 독특한 테루아에서 찾아진다.

부르고뉴의 서쪽은 고원지대다. 동쪽은 멀리 쥐라산맥을 바라보는 좁은 평원이다. 또한 북쪽으로는 파리분지가 자리한다.

파리분지는 2억 년 전까지는 바다였다. 결국 부르고뉴는 바다와 고원과 평원의 접점 지역이었다. 1억5000만 년 전후 쥐라기 시절 지각변동이 일어나면서 세 지대가 촘촘히 중첩하게 된다. 이로 인해 복잡한 토양 및 토질 구조를 형성하게 됐고 이 세 지점이 동시에 만난 지역이 바로 코트도르다. 그래서 이 지역은 포도밭 거리가 10m만 떨어져 있어도 와인의 풍미가 달라질 수 있다. 토질은 석회석과 이회토가 주류이다. 이 토양으로 인해 와인은 섬세함과 우아함이 더해진다. 그만큼 다양한 스타일과 풍미의 와인이 생산된다.

코트도르는 가을철 포도잎이 노랗게 물든다 하여 '황금의 언덕'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일부는 코트도리앙(Cote d Orient), 즉 '동쪽을 바라보는 언덕'이라고도 했다. 대륙성 기후인 데다 지대까지 높은 관계로 일조량도 적어 포도나무는 이 지역의 상징인 모르방(Morvan)산을 서쪽으로 등지고 동쪽 또는 남동쪽 경사면에 자리 잡아 아침 햇살을 듬뿍 받아들인다. 그랑크뤼 와이너리는 모두 햇살을 가장 많이 받는 언덕의 상단에 위치해 있다.

부르고뉴에서 단일 품종으로 재배하는 피노누아는 서늘한 기후를 좋아한다. 부르고뉴는 전 세계 레드와인 재배 지역 중 가장 서늘한 곳에 속한다. 또한 위도상 가장 북쪽에 속해있다.

대륙성 기후는 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이 특징이다. 일기 변화가 극심한 탓에 그레이 로트(gray rot)라는 곰팡이가 극성을 부리고 때로는 서리로 타격도 입는다. 재배단계까지 좋은 탓에 농사가 잘된 좋은 빈티지 와인은 천정부지로 값어 뛰는 것이다.

mchr@metroseoul.co.kr

날씨

12/18 水 일출시각 07:41 일몰시각 17:16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531.co.kr

기침, 가래, 발열 등은 폐렴의 증상입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나 천식 환자, 그리고 만성 폐질환자는 폐렴구균 예방접종으로 폐렴을 예방해야 합니다.

감기 가능 지수
천식 폐질환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www.paik.ac.kr)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6		1	9	7
				7	3			5
							5	
	8	3			5	9		
		5		3	1	4	7	2
	5			1	9			8
	7		6		4		3	9
	9	8			7	6	2	

								7
				3	6			
					8	1		6
					7		1	
	6				4		8	2
	4	7	5	8		3		
		1			5	2		
			9	6				1
9		2		1			5	

스도쿠 정답

문제 제공=보누스 슈퍼스도쿠 맥스터 (저렴가 이다어 리이디드 제공)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533-8877
www.saju4000.com

한달간 사귄 남성과 이별예감 기다려봐야 소용 없으니 포기

꽁을 엿지말가 여자 88년 4월 20일 음력 오전 5시50분

Q 지난 10월에 소개팅으로 만난 85년 1월생 남성과 한 달 넘게 좋은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6년 만에 찾아온 사랑인데 이별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고 가슴 아픕니다.

A 다정다감하고 고독을 싫어하는 성격입니다. 이별을 서러워하지만 기다림에 결과는 없습니다. 사주에 억아가 왔으며 희로애락의 감정 기복이 주렷하게 구분되는데 자주 실음을 내고 변화를 도모해 안정감이 걸여됩니다. 음력 4월 20일생으로 인(寅)날에 태어났는데 4월의 사(巳)가 일신에 해당돼 당신과 억이기 견지면 놀라고 될 만한 심사가 연출됩니다. 장점으로는 관귀학관(官貴學館)으로 지혜가 밝고 예의가 있어 입신출세하는데 본인이나 남편이 고위직에 오를 수 없지만 원지부부궁은 편안치 못합니다. 나쁜 것이 있으면 좋은 것도 있습니다. 월일에 삼형살로 고독시고가 염려되니 상체 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경로우대 인생 말년운이 궁금 질그릇이나 전통차 공부 추천

내일은푸르 여자 48년 12월 25일 음력 자정

Q 어느덧 지하철을 공짜로 타는 경로 노인이 됐습니다. 지나간 세월은 꿈만 같고 아직도 몸은 바쁘기만 합니다. 100세 시대인데 저의 말년운은 어떨지 알고 싶습니다.

A '초목'으로 표현되며 연약해 보이지만 태풍에도 꺾이지 않습니다. 무해(戊亥)의 기운도 있는데 육체 노동보다는 정신 노동이 적합합니다. 학술과 예가에 소질이 있고 독창적인 창작은 어려우나 전통적인 지식을 연구하고 답습하는 일은 잘합니다. 2014년은 청룡위림으로 새로운 기운이 상승해서 2016년은 작품으로 승화되기도 합니다. 전통차와 질그릇에 대해 연구하고 배운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소 인연이 없었던 길이더라도 도전해 보세요. 산다는 것 자체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는 일의 연속이고 학문을 배우고 실습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몸게 모르게 자산에게 쌓여 될 것입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김학수 인생상담

쥐: 48년생 소일거리 생겨 바쁜 하루. 60년생 배우자가 두둑부러 신경 쓰인다. 72년생 될성싶은 곧 떠나가니 걱정하지 마라. 84년생 자신만 생각하면 왕따당한다.

소: 49년생 직업일에 소극적이면 낭패. 61년생 자녀의 이유 있는 반항은 귀 기울여라. 73년생 가옥 문제로 고민 생긴다. 85년생 생각지 못한 사람 고백에 얼굴얼.

범: 50년생 아쉬 멀어지더라도 사랑 가려라. 62년생 생각의 차이를 인정하면 편안하다. 74년생 투자 문제는 보류하라. 86년생 욕심부리면 곤란한 일 생긴다.

토끼: 51년생 대세 따라야 무리 없다. 63년생 결정한 일은 흔들지 마라. 75년생 그리운 사람과 우연히 만난다. 87년생 몸이 좋아하는 이성과 아주 가까이 가슴 두근두근.

용: 52년생 여유있게 저축하면 신뢰 얻는다. 64년생 관계에 드나들 일 생긴다. 76년생 비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주의. 88년생 호쾌한 성격 덕분에 사람 몰린다.

뱀: 53년생 의지 강해질 일 생긴다. 65년생 문서 일은 보고 또 보는 게 좋다. 77년생 어려운 일이지만 일출구도 있다. 89년생 상사에게 원하던 답 듣게 돼 의욕 충만.

말: 42년생 과욕으로 인한 실수 조심. 54년생 준비가 덜으면 어려도 없다. 66년생 새 터전을 원하지만 여건이 안 된다. 78년생 호수 를 떠는 꿈꿨던 고민이 생긴다.

양: 43년생 걱정한 일은 무사히 넘어간다. 55년생 음주운전 절대 하지 마라. 67년생 생각지 못한 공돈이 생겨 관덕년다. 79년생 하늘을 봐야 별을 따니 도전하라.

원숭이: 44년생 부적절한 금전은 사양할 것. 56년생 물러지 않던 일은 변화가 있다. 68년생 남의 일로 분주하지만 이득도 생긴다. 80년생 화려하다고 다 좋은 건 아니다.

닭: 45년생 무기력한 일상에 변화 생긴다. 57년생 명분보다 실리 추구하라. 69년생 아리송한 일은 대세 따르면 무리가 없다. 81년생 맡은 일 즐기다 능률 오른다.

개: 46년생 반가운 손님이 찾아온다. 58년생 고민 드러내면 일만 더 꼬인다. 70년생 작은 것에 만족하고 내일을 기약하라. 82년생 한 우물을 파면 뜻이 이뤄진다.

돼지: 47년생 열광할 일거리 생긴다. 59년생 오늘보다 내일을 생각하며 만내하라. 71년생 선택이 기로에서 고민에 빠진다. 83년생 이식으로 인한 구설수 조심하라.

설레는 도전을 시작합니다!

엄마, 나 러시앤캐시 합격했어
우리 회사에 대해 안 좋은 얘기가 많지?
나도 잘 알아~
그래서 처음엔 망설였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구
은행이나 카드회사랑 하는 일은 비슷해
대신 이자가 비싼 만큼
훨씬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야
아직 신입사원이긴 하지만 다니보니까 좀 좋아지네?!
그래서 한 번 열심히 해보려구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능력 발휘해서 꼭 필요한 사람을 위한
더 좋은 회사로 만들게요!

우리의 도전을 지켜봐 주세요!